



육아휴직통계



통계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21.(수) 12:0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15:00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구현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강숙희 (042-481-2237)

2021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일 러 두 기

- ☐ 육아휴직통계는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20년 개발되었습니다.
- ☐ 본 통계는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11종)를 연계·활용하여 작성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로 공표합니다.
 - 수록된 2021년 수치는 잠정치(p)이고, 1년 후 확정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는 확정치보다 적게 집계되오니, 분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올해에는 고용보험자료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2019~2020년(확정) 출산휴가자를 신규로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에서, 통계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육아휴직통계

전체 육아휴직자수 및 비중



산업대분류별 비중(%)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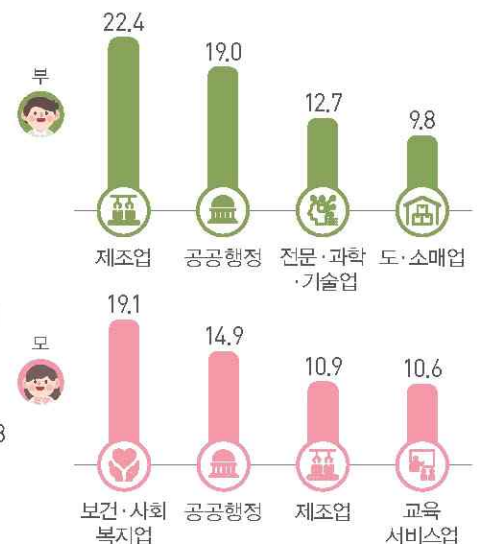
기업체 규모별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수 및 비중



산업대분류별 비중(%)



연령별 비중(%)



기업체 규모별 비중(%)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단위: 출생아 100명당 명



부 모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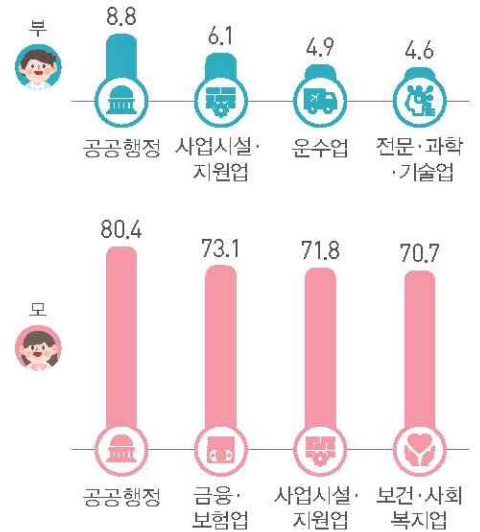
연령별 비중(%)



기업체 규모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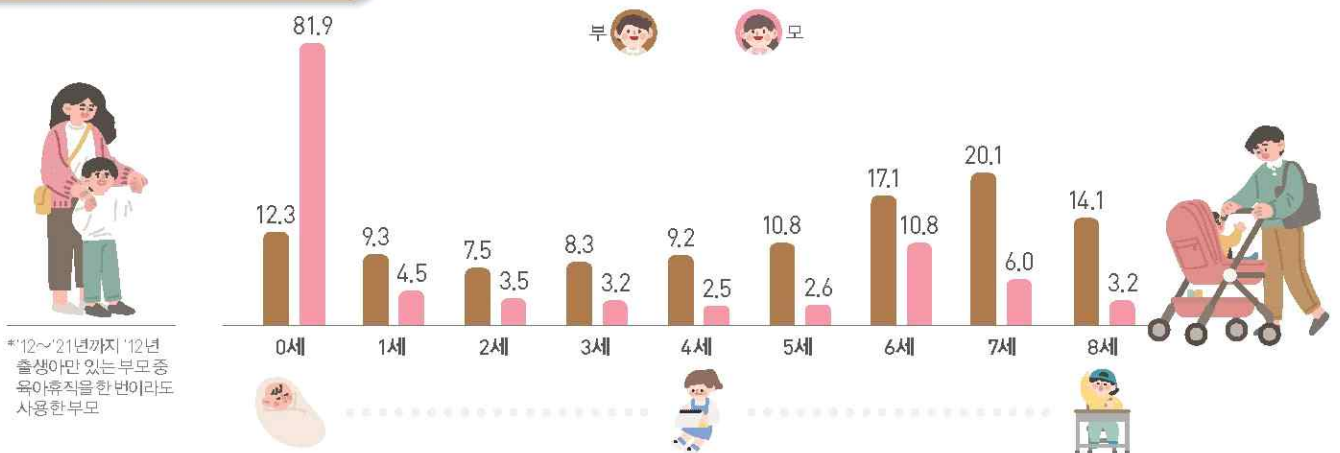


산업대분류별 비중(%)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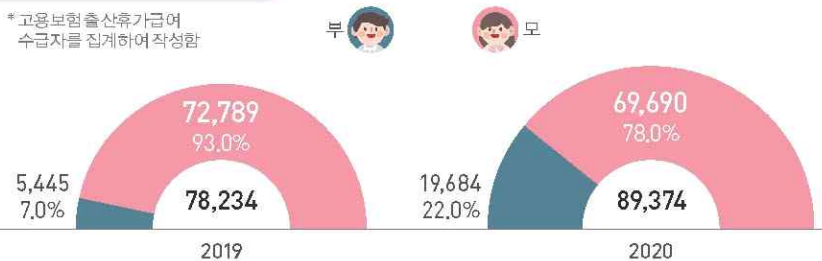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출산휴가자 수

단위: 명, %

* '12~'21년까지 '12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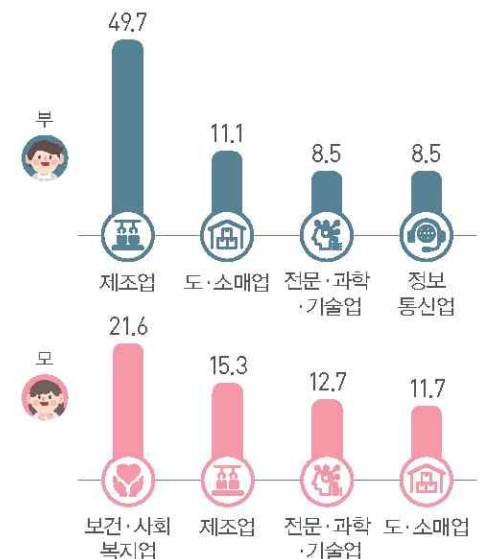
연령별 비중(%)



기업체 규모별 비중(%)



산업대분류별 비중(%)



목 차

□ 2021년 육아휴직통계(요약)	1
--------------------------	---

□ 2021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가. 전체 육아휴직자	4
나. 연령별 비중	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6
라. 종사 산업별 비중	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8
나. 연령별 비중	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12
나. 연령별 비중	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14
라. 종사 산업별 비중	15

2-3.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	16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17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18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19

3. 전 기간(2012~2021년) 육아휴직 행태(1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20
나.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21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22

5. 전체 출산휴가자 수

가. 전체 출산휴가자	23
나. 연령별 비중	2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25
라. 종사 산업별 비중	26

□ 통계표

28

◇ 부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56
2. 자주하는 질문	57
3. 한국표준산업분류	64

2021년 육아휴직통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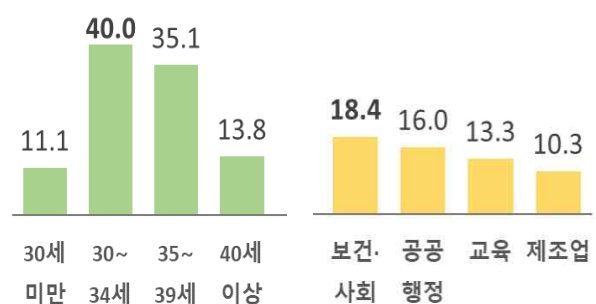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만 3,631명임

- '21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 3,631명임
- 육아휴직자(17만 3,631명)의 24.1%는 부(父)이고, 모(母)는 75.9%로 부(父)의 3.1배임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40.0%)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18.4%)에서 가장 높음

< 전체 육아휴직자 수(천명) 및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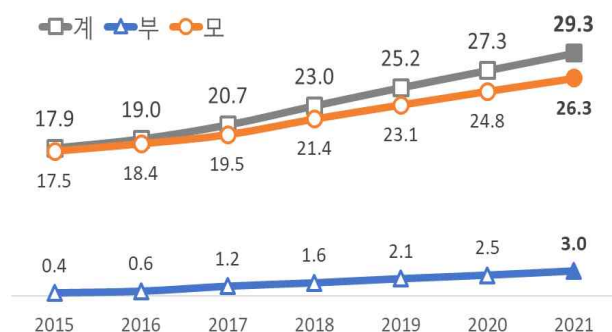
<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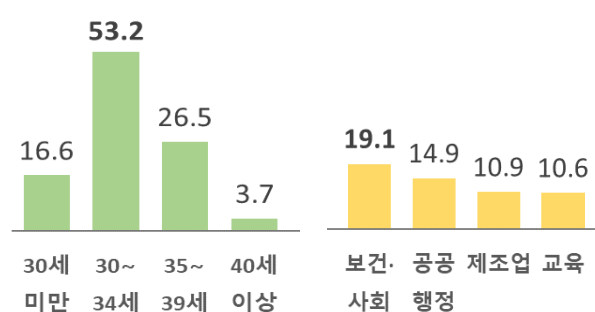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7만 6,463명임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임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3.2%)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9.1%)에서 가장 높음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명) >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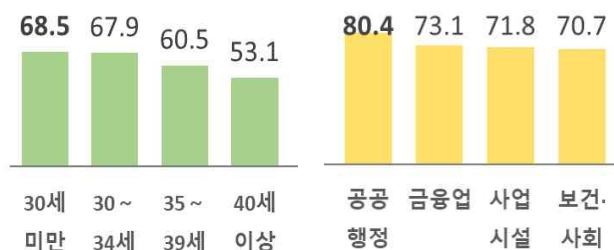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25.6%임

- '2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는 4.1%, 모(母)는 65.2%로 전년대비 부(父) 0.6%p, 모(母)는 0.8%p 각각 상승함
- 출생아 모(母)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68.5%)에서 가장 높고, 산업은 공공행정·사회보장(80.4%)에서 가장 높음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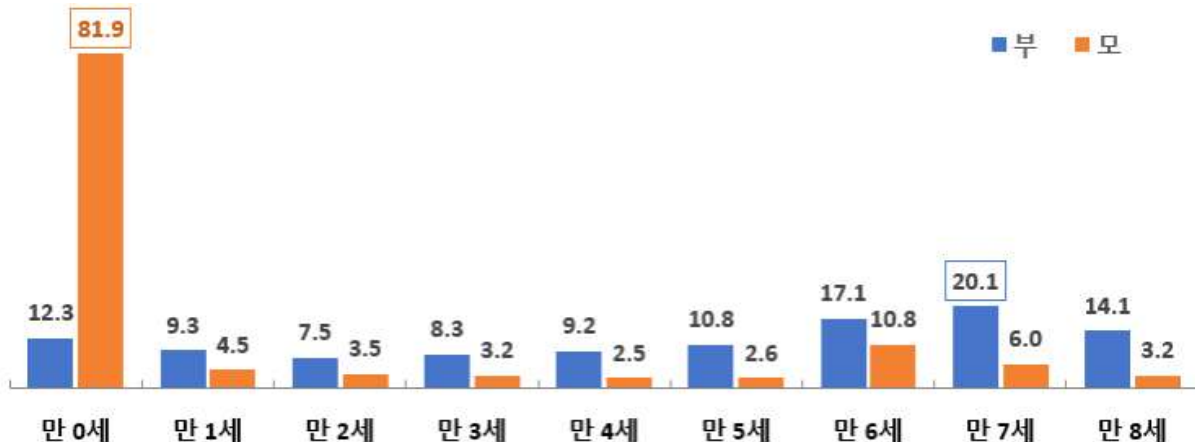


'12년 출생아 1자녀 부모 중 모(母)는 자녀 나이 만 0세(81.9%) 때, 부(父)는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함

- 1자녀 부모* 대상으로 전 기간(만 0세~8세) 육아휴직 행태는 부(父)는 자녀가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하고, 모(母)는 자녀가 만 0세(81.9%)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함

* '12~'21년까지 '12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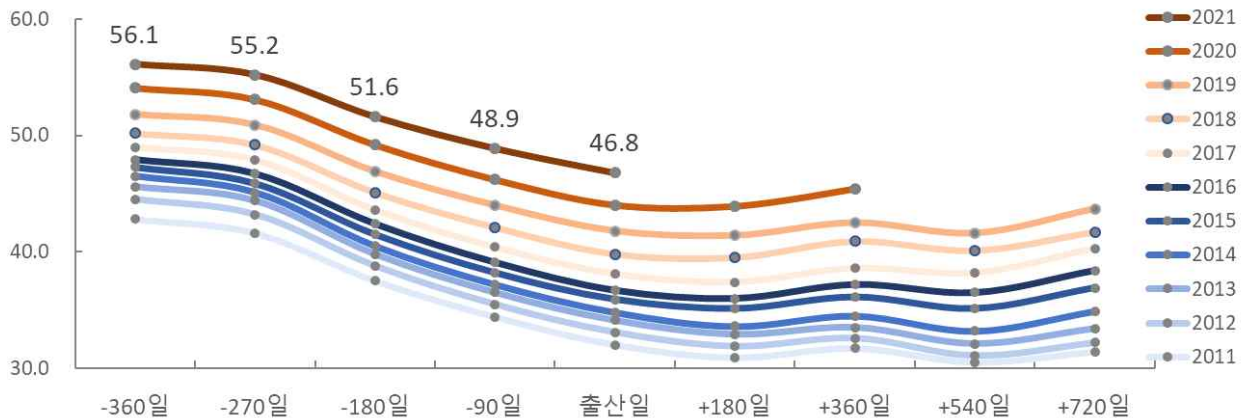
< (1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



’21년 출산 기준 취업 중인 모(母)는 46.8%로 출산 360일 전보다 9.3%p 낮음

- ’21년 출산 모(母)의 46.8%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 (56.1%)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3%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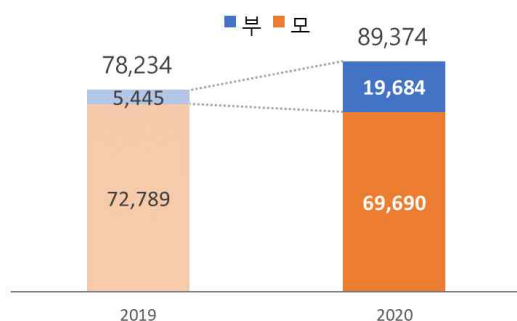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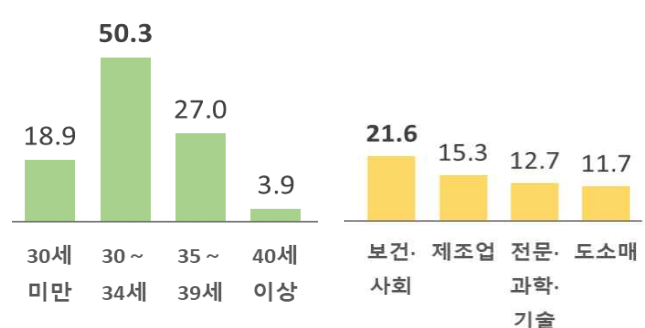
’20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4.2% 증가, 모(母)는 감소, 부(父)는 증가

- ’20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자는 8만 9,374명으로 전년(7만 8,234명)보다 14.2%(1만 1,140명) 증가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9,684명으로 전년(5,445명)보다 261.5% (1만 4,239명) 증가함
- 출산휴가를 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50.3%)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21.6%)에서 가장 높음

< 전체 출산휴가자 수(명) >



< 모(母)의 출산휴가자 비중(%) >



2021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가. 전체 육아휴직자

'21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만 3,631명임

□ '21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 3,63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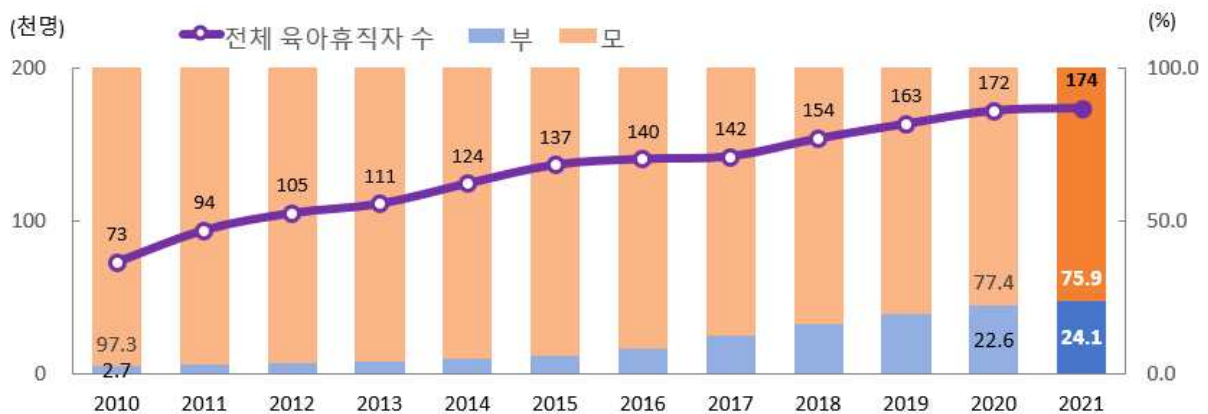
* '20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1년까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등 제외

○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4만 1,910명으로 전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 모(母)는 13만 1,721명으로 전년보다 1.1%(-1,425명) 감소함

○ 육아휴직자 17만 3,631명 중 부(父)는 24.1%, 모(母)가 75.9%를 차지함

- 특히,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2.6%) 대비 1.5%p 상승함

< 전체 육아휴직자 수(천명) 및 비중(%) >



< 전체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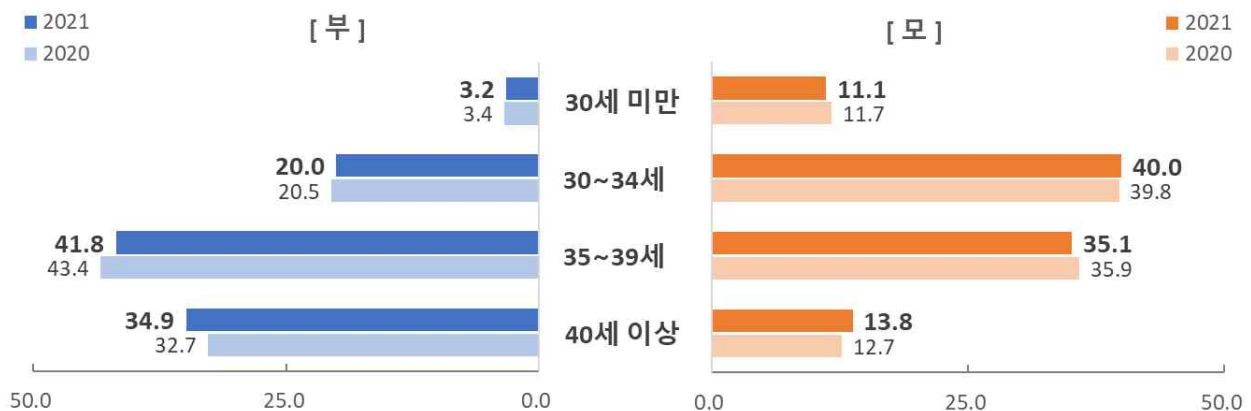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P	증감	증감률
전체	72,967	136,560	140,403	142,038	153,741	163,256	171,959	173,631	1,672	1.0
부	1,967	8,220	11,965	18,160	25,062	32,051	38,813	41,910	3,097	8.0
비중	2.7	6.0	8.5	12.8	16.3	19.6	22.6	24.1	1.5	-
모	71,000	128,340	128,438	123,878	128,679	131,205	133,146	131,721	-1,425	-1.1
비중	97.3	94.0	91.5	87.2	83.7	80.4	77.4	75.9	-1.5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41.8%), 모(母)는 30~34세(40.0%)가 가장 많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41.8%)와 40세 이상(34.9%)이 76.7%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2%p 상승한 반면, 35~39세(-1.5%p), 30~34세(-0.5%p), 30세 미만(-0.2%p)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0%)와 35~39세(35.1%)가 75.1%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1.1%로 가장 낮음
 - 전년 대비 40세 이상(1.1%p) 및 30~34세(0.2%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0.7%p) 및 30세 미만(-0.6%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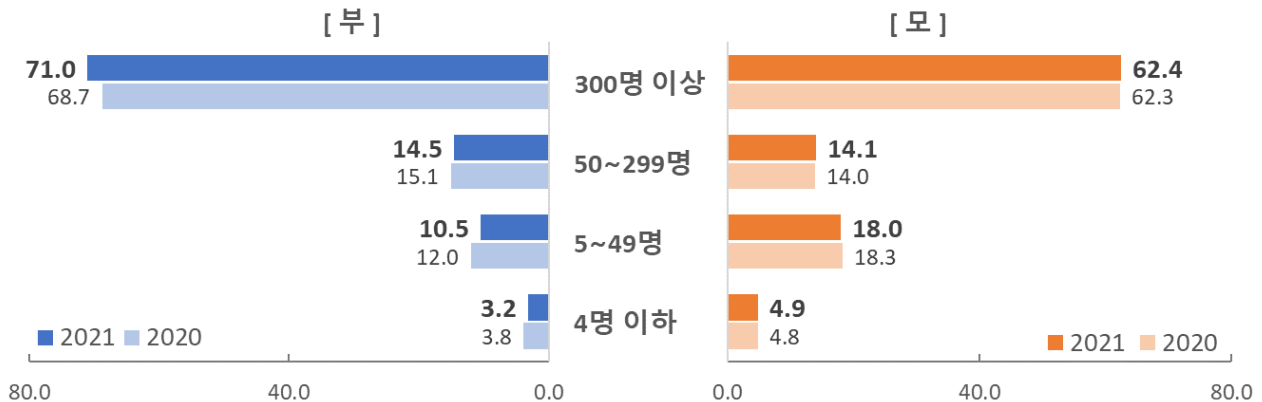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38,813	133,146	41,910	131,721	3,097	-1,425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3.4	11.7	3.2	11.1	-0.2	-0.6
30~34세		20.5	39.8	20.0	40.0	-0.5	0.2
35~39세		43.4	35.9	41.8	35.1	-1.5	-0.7
40세 이상		32.7	12.7	34.9	13.8	2.2	1.1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4명 이하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3.2%로 낮음
 - 전년 대비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2.2%p 상승한 반면, 5~49명(-1.5%p), 4명 이하(-0.6%p) 및 50~299명(-0.5%p)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고, 5~49명인(18.0%), 50~299명(14.1%), 4명 이하(4.9%)인 기업 순임
 - 전년 대비 300명 이상과 50~299명인 기업에 소속 비중은 각각 0.1%p 상승한 반면, 5~49명인 기업에 소속 비중은 0.3%p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38,813	133,146	41,910	131,721	3,097	-1,425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68.7	62.3	71.0	62.4	2.2	0.1
50~299명		15.1	14.0	14.5	14.1	-0.5	0.1
5~49명		12.0	18.3	10.5	18.0	-1.5	-0.3
4명 이하		3.8	4.8	3.2	4.9	-0.6	0.0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2.4%)에, 모(母)는 보건업및사회복지(18.4%)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구성비는 제조업(22.4%), 공공 행정·사회보장(21.3%), 전문·과학·기술(10.6%) 순으로 높았음
 - 전년 대비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1.7%p), 도매 및 소매업(1.2%p) 등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전문·과학·기술(-1.0%p), 정보통신업(-0.7%p) 등 비중은 하락함
- 육아휴직을 한 모(母)는 보건업·사회복지(18.4%), 공공 행정·사회보장(16.0%), 교육서비스업(13.3%) 순임
 - 전년 대비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1.1%p), 전문·과학·기술(0.2%p) 비중은 상승한 반면, 사업시설(-0.6%p) 등 비중은 하락함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38,813	133,146	41,910	131,721	3,097	-1,425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2.7	10.5	22.4	10.3	-0.4	-0.2
도매 및 소매업		7.8	8.2	9.0	7.9	1.2	-0.2
정보통신업		5.9	4.0	5.1	3.8	-0.7	-0.2
금융 및 보험업		3.2	7.8	3.4	7.5	0.2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	8.8	10.6	9.0	-1.0	0.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6.0	5.3	5.3	4.7	-0.6	-0.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6	14.9	21.3	16.0	1.7	1.1
교육 서비스업		5.7	13.8	5.3	13.3	-0.4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	18.4	2.9	18.4	-0.1	0.0
그 외 기타*		14.5	8.4	14.7	9.0	0.1	0.6

*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9%(2,188명) 증가한 7만 6,463명임
-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7,878명으로 전년보다 1,007명(14.7%) 증가하였고, 모(母)는 6만 8,585명으로 전년보다 1.8%(1,181명) 증가함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임
- 부(父)는 전년 대비 0.5명 증가한 3.0명, 모(母)는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26.3명임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명) >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

(단위: 출생아 100명당 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P	증감	증감률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C+D)	전체	73,962	75,227	76,136	74,275	76,463	2,188	2.9
	부(C)	4,126	5,278	6,340	6,871	7,878	1,007	14.7
	모(D)	69,836	69,949	69,796	67,404	68,585	1,181	1.8
	부&모	2,110	2,706	3,644	4,828	5,760	932	19.3
출생아 (B)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11,775	-4.3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B*100)	전체	20.7	23.0	25.2	27.3	29.3	2.1	-
	부	1.2	1.6	2.1	2.5	3.0	0.5	-
	모	19.5	21.4	23.1	24.8	26.3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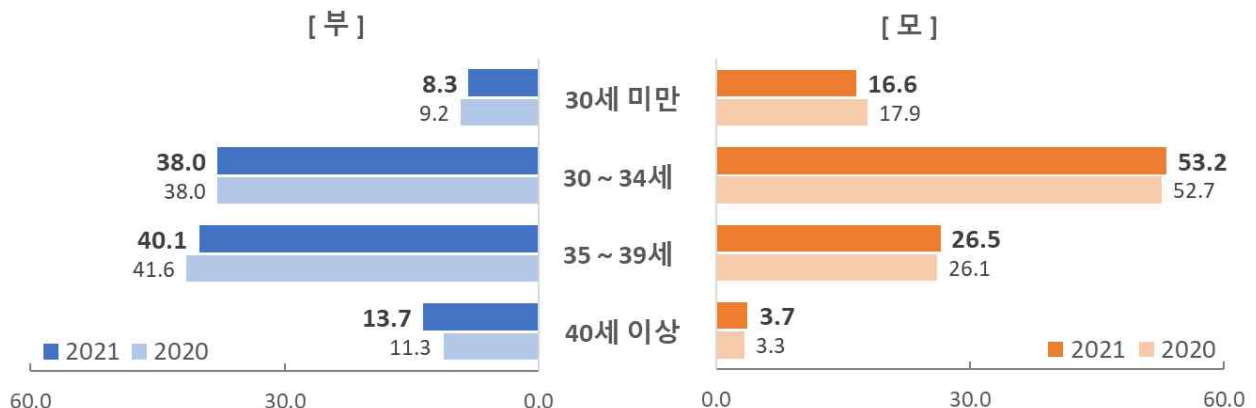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임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40.1%), 모(母)는 30~34세(53.2%)가 가장 많음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40.1%)와 30~34세(38.0%)가 78.1%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이 8.3%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40세 이상(2.4%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1.5%p)과 30세 미만(-0.9%p) 비중은 하락함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53.2%)와 35~39세(26.5%)가 79.7%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이 3.7%로 가장 낮음
 -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전년 대비 1.3%p 하락한 반면, 30~34세(0.5%p), 35~39세(0.4%p), 40세 이상(0.4%p) 비중은 상승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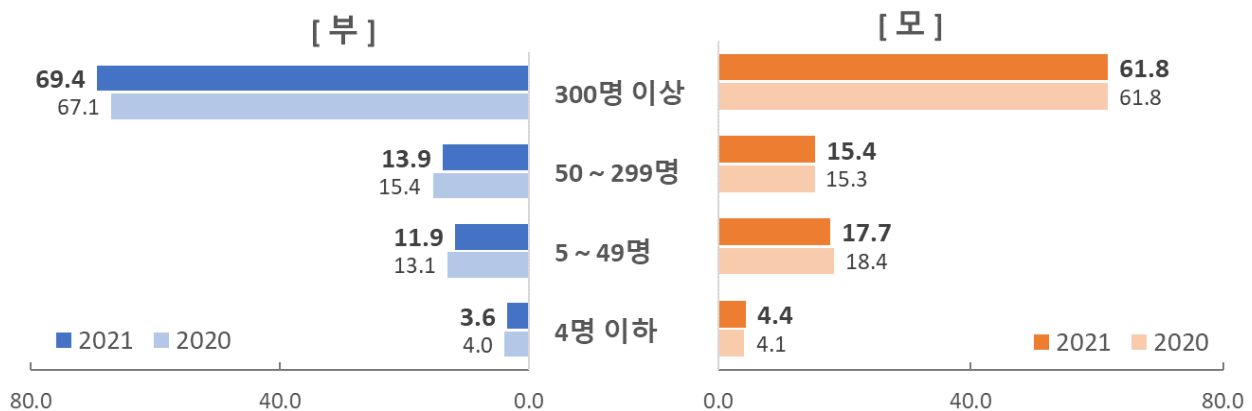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6,871	67,404	7,878	68,585	1,007	1,181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2	17.9	8.3	16.6	-0.9	-1.3
30~34세		38.0	52.7	38.0	53.2	0.0	0.5
35~39세		41.6	26.1	40.1	26.5	-1.5	0.4
40세 이상		11.3	3.3	13.7	3.7	2.4	0.4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69.4%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3.6%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전년 대비 2.3%p 상승함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61.8%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4.4%로 가장 낮음
 -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6,871	67,404	7,878	68,585	1,007	1,181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67.1	61.8	69.4	61.8	2.3	-0.1
50~299명		15.4	15.3	13.9	15.4	-1.6	0.1
5~49명		13.1	18.4	11.9	17.7	-1.2	-0.6
4명 이하		4.0	4.1	3.6	4.4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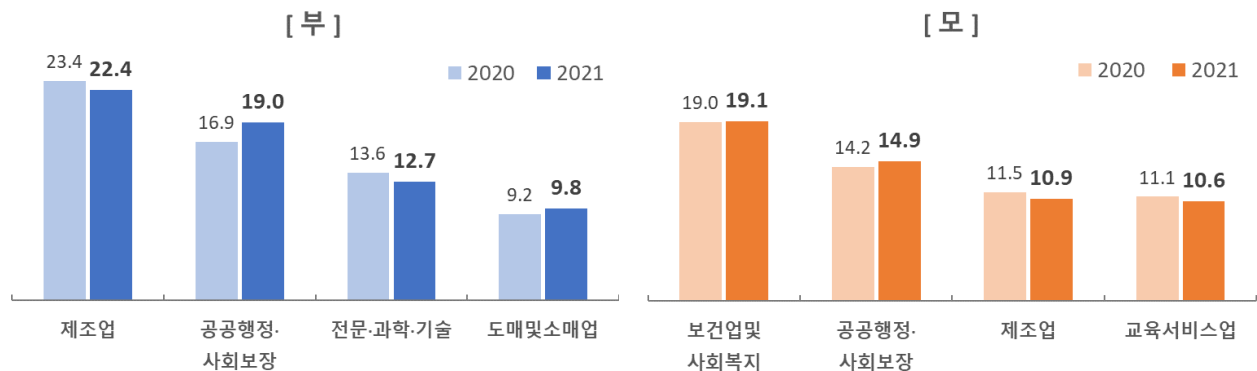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2.4%), 모(母)는 보건업및사회복지(19.1%)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2.4%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사회보장(19.0%), 전문·과학·기술(12.7%) 순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모(母)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19.1%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사회보장(14.9%), 제조업(10.9%)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6,871	67,404	7,878	68,585	1,007	1,181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3.4	11.5	22.4	10.9	-1.0	-0.7
건설업		4.1	1.5	3.6	1.5	-0.5	0.0
도매 및 소매업		9.2	8.4	9.8	8.4	0.6	0.0
운수 및 창고업		4.7	2.3	4.3	2.5	-0.5	0.1
숙박 및 음식점업		2.2	1.3	2.3	1.3	0.1	0.0
정보통신업		5.6	4.4	4.8	4.3	-0.7	-0.1
금융 및 보험업		2.6	7.7	2.7	7.6	0.1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6	10.1	12.7	10.4	-1.0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0	4.7	5.2	4.3	-0.8	-0.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9	14.2	19.0	14.9	2.1	0.6
교육 서비스업		3.9	11.1	3.7	10.6	-0.2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19.0	2.9	19.1	0.0	0.1
그 외 기타*		4.8	3.7	6.4	4.3	1.5	0.6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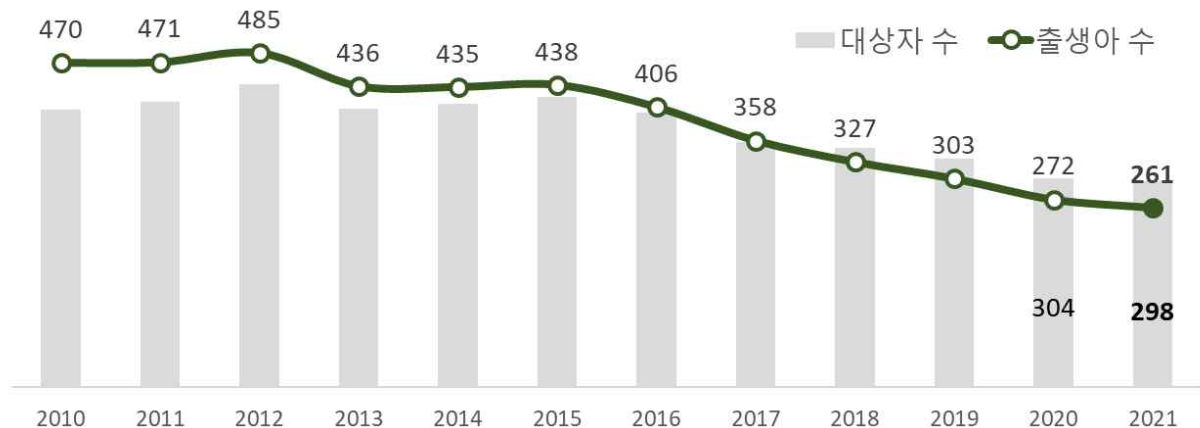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9만 8,329명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9만 8,329명으로 전년 대비 1.8%(-5,364명) 감소함
 - 육아휴직 대상자 중 출생아 부(父)가 64.7%를 차지하고 출생아 모(母)는 35.3%를 차지함
 - 전년대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父)는 2.9%(-5,852명) 감소한 반면, 모(母)는 0.5%(488명) 증가함
- '21년 출생아는 26만 562명으로 전년 대비 4.3%(-11,775명) 감소함
 - 전년대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육아휴직 대상자 감소 폭 보다 크게 나타남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천명) >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및 출생아 수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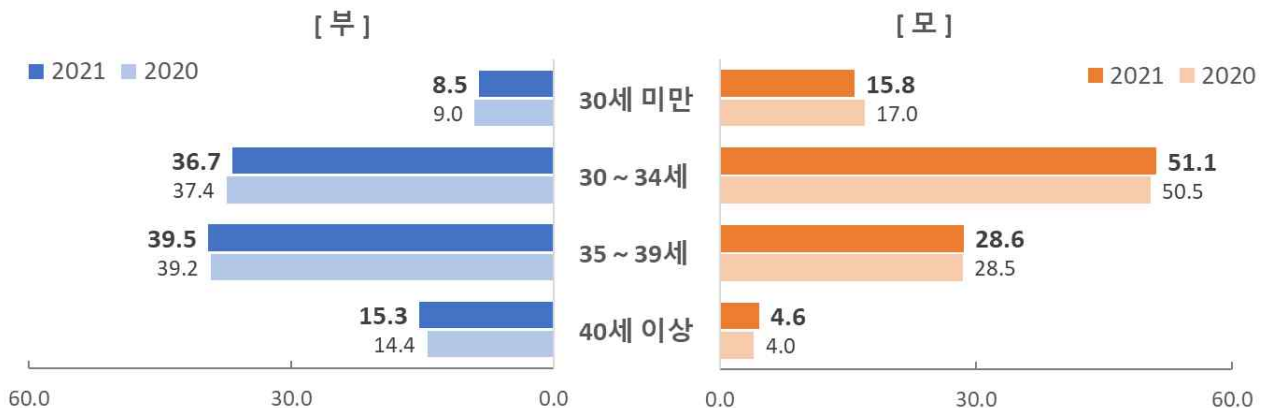
		2020		2021 ^P		증감	증감률
			비중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계	303,693	100.0	298,329	100.0	-5,364	-1.8
	부	198,971	65.5	193,119	64.7	-5,852	-2.9
	모	104,722	34.5	105,210	35.3	488	0.5
출생아		272,337	-	260,562	-	-11,775	-4.3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5%), 모(母)는 30~34세(51.1%)로 가장 높음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5~39세(39.5%)와 30~34세(36.7%)가 76.2%를 차지함
 - 전년대비 40세 이상(0.9%p)와 35~39세(0.3%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34세(-0.7%p)과 30세 미만(-0.5%p) 비중은 하락함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51.1%)와 35~39세(28.6%)가 79.7%를 차지함
 - 전년대비 30~34세(0.6%p), 40세 이상(0.6%p), 35~39세(0.1%p)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 비중은 1.2%p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연령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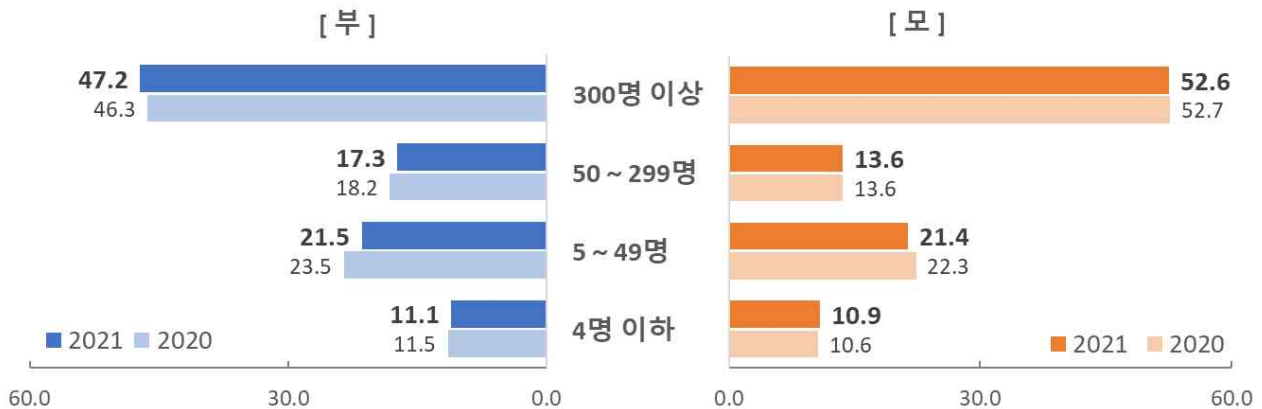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198,971	104,722	193,119	105,210	-5,852	4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0	17.0	8.5	15.8	-0.5	-1.2
30~34세		37.4	50.5	36.7	51.1	-0.7	0.6
35~39세		39.2	28.5	39.5	28.6	0.3	0.1
40세 이상		14.4	4.0	15.3	4.6	0.9	0.6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와 모(母) 모두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의 47.2%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0.9%p 상승한 반면, 5~49명(-2.1%p), 50~299명(-0.9%p) 및 4명 이하(-0.3%p) 비중은 하락함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의 52.6%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 전년대비 4명 이하 규모에 소속된 비중은 0.2%p 상승한 반면, 5~49명(-0.9%p), 300명 이상(-0.1%p) 비중은 하락함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198,971	104,722	193,119	105,210	-5,852	4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0.0	0.0
300명 이상		46.3	52.7	47.2	52.6	0.9	-0.1
50~299명		18.2	13.6	17.3	13.6	-0.9	0.0
5~49명		23.5	22.3	21.5	21.4	-2.1	-0.9
4명 이하		11.5	10.6	11.1	10.9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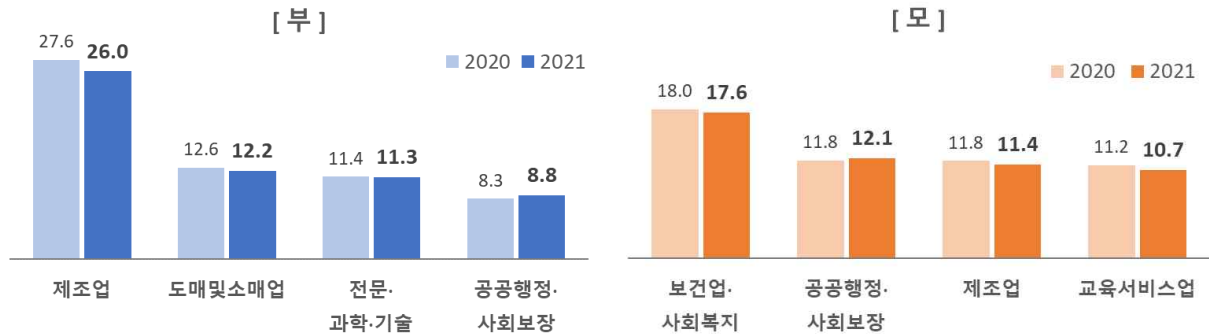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26.0%),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17.6%)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26.0%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2.2%), 전문·과학·기술(11.3%) 순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17.6%로 가장 높고, 공공행정·사회보장(12.1%), 제조업(11.4%) 순임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 출생아 부모 중 산업별 육아휴직 대상자 비중 >

(단위: 명,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198,971	104,722	193,119	105,210	-5,852	488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27.6	11.8	26.0	11.4	-1.6	-0.4
건설업		7.0	2.7	6.8	2.6	-0.3	-0.1
도매 및 소매업		12.6	10.6	12.2	10.4	-0.4	-0.2
정보통신업		5.4	4.0	5.5	4.0	0.1	0.0
금융 및 보험업		4.2	6.7	4.4	6.8	0.2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4	9.7	11.3	9.9	-0.1	0.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3	11.8	8.8	12.1	0.5	0.3
교육 서비스업		3.6	11.2	3.7	10.7	0.1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18.0	3.8	17.6	-0.2	-0.4
그외 기타*		15.9	13.6	17.6	14.5	1.6	0.9

* 운수및창고업,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2-3.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

'2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25.6%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중은 전년 대비 1.2%p 증가한 25.6%임

○ '2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는 4.1%, 모(母)는 65.2%로
전년대비 부(父) 0.6%p, 모(母)는 0.8%p 각각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P	증감	증감률
육아휴직 사용률 (A/B*100)	계	20.8	21.7	23.0	24.5	25.6	1.2	-
	부	1.7	2.3	2.9	3.5	4.1	0.6	-
	모	60.6	61.2	62.8	64.4	65.2	0.8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A)	계	73,962	75,227	76,136	74,275	76,463	2,188	2.9
	부	4,126	5,278	6,340	6,871	7,878	1,007	14.7
	모	69,836	69,949	69,796	67,404	68,585	1,181	1.8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B)	계	356,402	346,914	331,409	303,693	298,329	-5,364	-1.8
	부	241,208	232,690	220,350	198,971	193,119	-5,852	-2.9
	모	115,194	114,224	111,059	104,722	105,210	488	0.5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는 30~34세(4.2%), 모(母)는 30세 미만(68.5%)이 가장 높고, 부모 모두 40세 이상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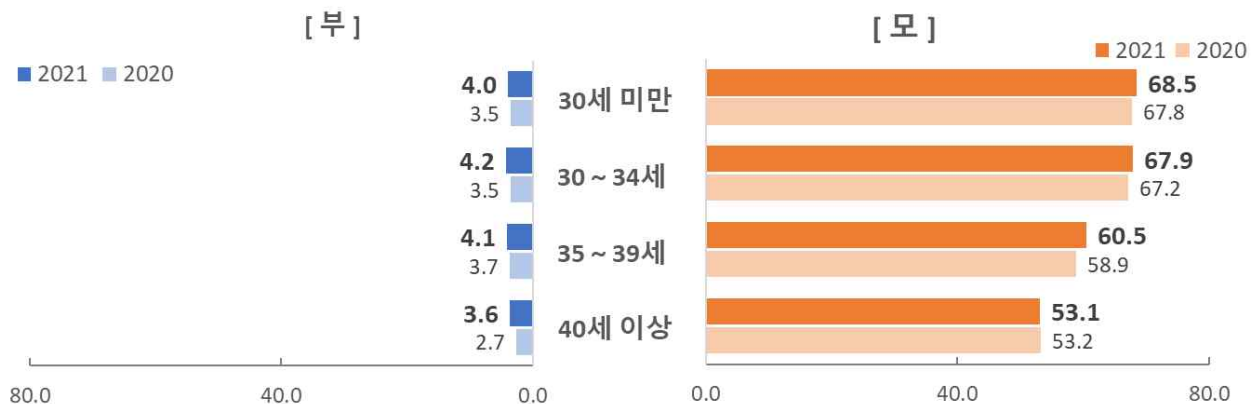
□ '21년 출생아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4.2%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3.6%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40세 이상(0.9%p), 30~34세(0.7%p), 30세 미만(0.5%p), 35~39세(0.5%p) 등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21년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68.5%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3.1%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35~39세(1.6%p), 30세 미만(0.7%p), 30~34세(0.7%p) 상승한 반면, 40세 이상은 0.2%p 하락함

< 출생아 부모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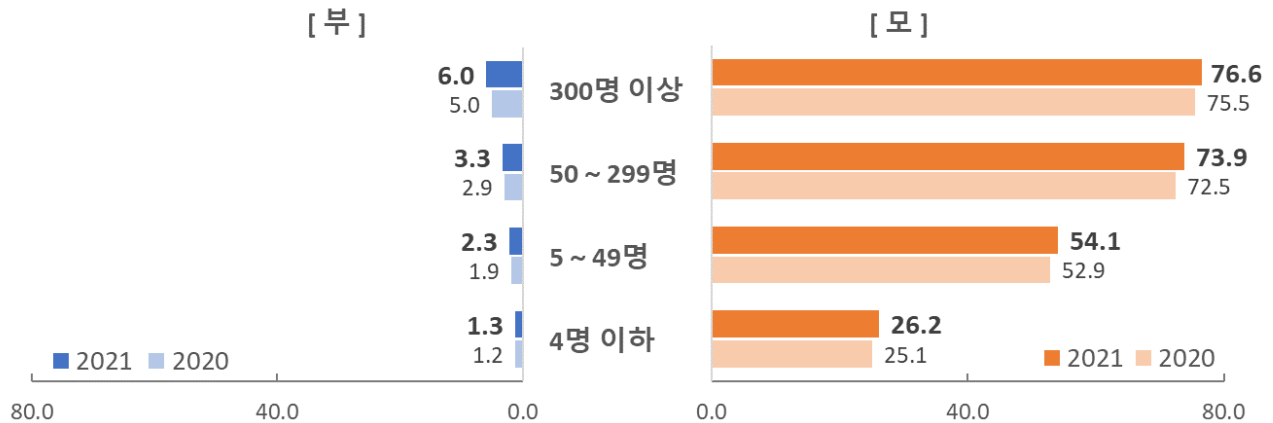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3.5	64.4	4.1	65.2	0.6	0.8
30세 미만	3.5	67.8	4.0	68.5	0.5	0.7
30~34세	3.5	67.2	4.2	67.9	0.7	0.7
35~39세	3.7	58.9	4.1	60.5	0.5	1.6
40세 이상	2.7	53.2	3.6	53.1	0.9	-0.2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300명 이상인 규모에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음

- '21년 출생아 부(父)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이 6.0%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이 1.3%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1.0%p), 50~299명(0.3%p), 5~49명(0.3%p)인 기업 등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21년 출생아 모(母)가 소속된 기업체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이 76.6%로 가장 높고,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기업이 26.2%로 가장 낮음
 - 전년대비 종사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

(단위: %, %p)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3.5	64.4	4.1	65.2	0.6	0.8
300명 이상	5.0	75.5	6.0	76.6	1.0	1.0
50~299명	2.9	72.5	3.3	73.9	0.3	1.4
5~49명	1.9	52.9	2.3	54.1	0.3	1.2
4명 이하	1.2	25.1	1.3	26.2	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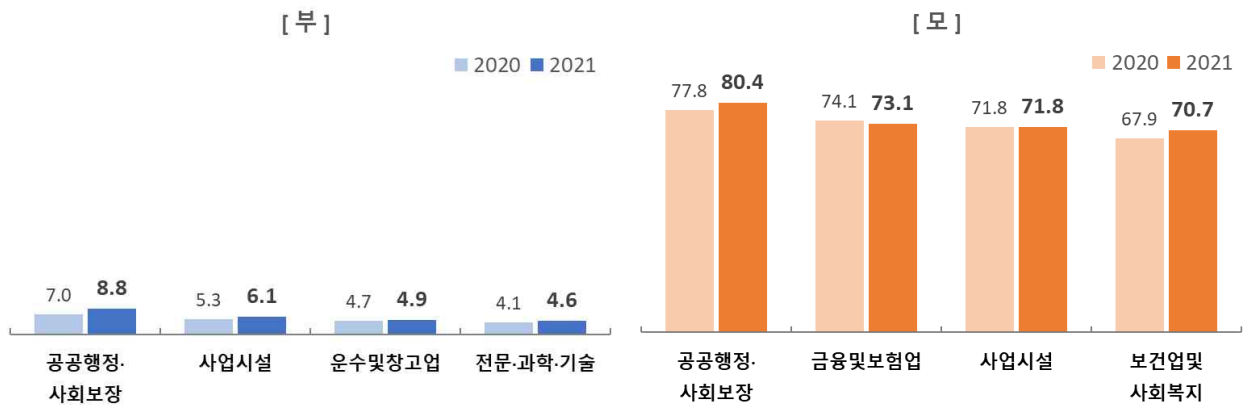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21년 출생아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사회보장에서 가장 높음

- '21년 출생아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사회보장이 8.8%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6.1%), 운수및창고업(4.9%) 순임
- 전년대비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승함
- '21년 출생아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행정·사회보장이 80.4%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73.1%), 사업시설(71.8%) 순임
- 전년대비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2.8%p), 공공행정·사회보장(2.6%p), 숙박 및 음식점업(2.2%p)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상승함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 출생아 부모의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

(단위: %)

	2020		2021 ^P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3.5	64.4	4.1	65.2	0.6	0.8
제조업	2.9	63.0	3.5	62.4	0.6	-0.6
건설업	2.0	35.8	2.2	37.5	0.2	1.7
도매 및 소매업	2.5	51.4	3.3	52.6	0.8	1.2
운수 및 창고업	4.7	68.9	4.9	70.6	0.2	1.7
숙박및음식점업	2.8	29.6	4.1	31.8	1.3	2.2
정보통신업	3.5	70.9	3.6	69.5	0.0	-1.4
금융 및 보험업	2.1	74.1	2.5	73.1	0.4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1	66.9	4.6	68.1	0.5	1.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5.3	71.8	6.1	71.8	0.8	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0	77.8	8.8	80.4	1.8	2.6
교육 서비스업	3.7	63.4	4.1	64.7	0.4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67.9	3.1	70.7	0.6	2.8
기타*	2.9	54.4	3.2	49.3	0.3	-5.1

* 기타(농림어업,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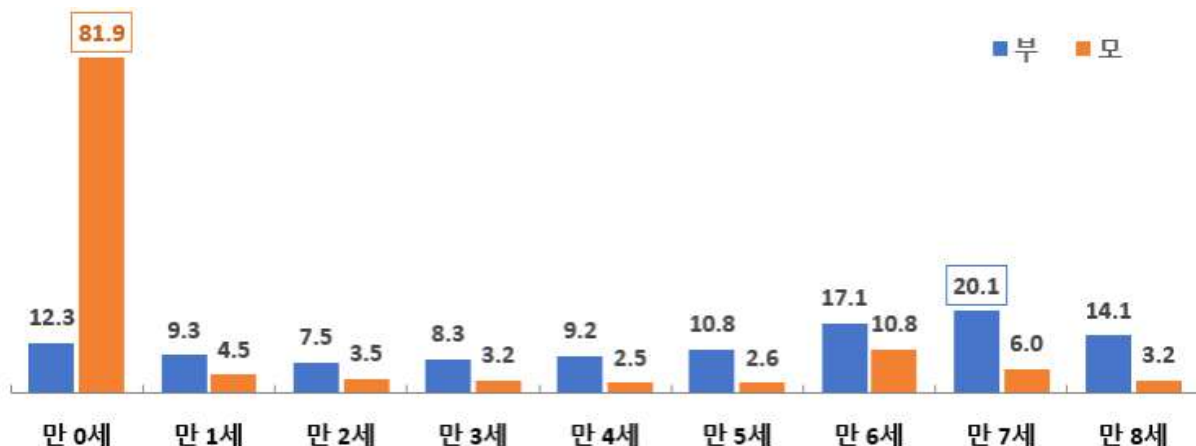
3. 전 기간(2012~2021년) 육아휴직 행태(1자녀 부모)

가.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12년 출생아 1자녀 부모 중 모(母)는 자녀 나이 만 0세(81.9%) 때, 부(父)는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함

- '12년 출생아 1자녀 부모* 대상으로 전 기간(만 0세~만 8세) 육아휴직 행태는 부(父)는 자녀가 만 7세 때, 모(母)는 만 0세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함
- * '12~'21년까지 '12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부(父)는 자녀가 만 7세(20.1%), 만 6세(17.1%), 만 8세(14.1%) 때 순으로 육아휴직을 많이 함
 - 모(母)는 자녀가 만 0세 때 81.9%가 육아휴직을 하였고, 만 6세(10.8%), 만 7세(6.0%) 순으로 육아휴직 비중이 높음

< (1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



< (1자녀 부모)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

(단위: %, %p)

출생연도	성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만8세
2011	계	74.4	5.7	3.9	3.9	4.0	3.4	10.8	6.8	4.6
	부	15.1	10.6	7.5	7.6	8.1	9.6	16.2	17.6	15.9
	모	81.3	5.1	3.5	3.5	3.6	2.7	10.2	5.5	3.3
2012 ^p	계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1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증감	계	-0.9	-0.6	0.1	-0.1	-0.7	0.2	0.7	0.9	-0.1
	부	-2.8	-1.3	0.0	0.7	1.1	1.2	0.9	2.5	-1.8
	모	0.6	-0.6	0.0	-0.3	-1.1	-0.1	0.6	0.5	-0.1

나.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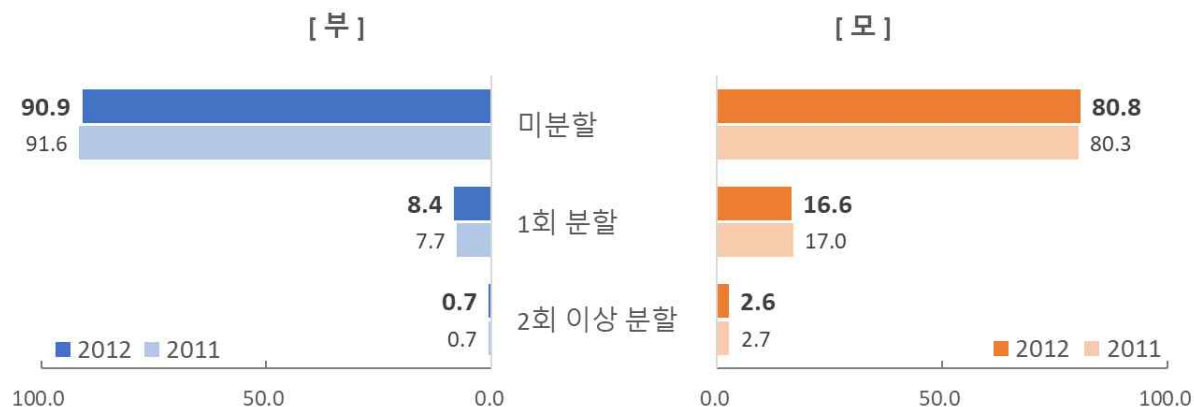
육아휴직을 1번 이상 분할하여 사용한 부(父)는 9.1%, 모(母)는 19.2%임

- '12년 출생아 1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父)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90.9%,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8.4%,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0.7%임

* '12~'21년까지 '12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모(母)는 미분할 사용(1회 휴직)이 80.8%, 1회 분할 사용(2회 휴직)이 16.6%, 2회 이상 분할 사용(3회 이상 휴직)이 2.6%임

< 1자녀 부모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



< 1자녀 부모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전 기간) >

(단위: %)

출생연도	2011			2012 ^p			증감		
	계	부	모	계	부	모	계	부	모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미분할(1회 휴직)	81.5	91.6	80.3	82.1	90.9	80.8	0.6	-0.7	0.5
1회 분할(2회 휴직)	16.0	7.7	17.0	15.6	8.4	16.6	-0.4	0.7	-0.4
2회 이상 분할(3회이상 휴직)	2.5	0.7	2.7	2.4	0.7	2.6	-0.1	0.0	-0.1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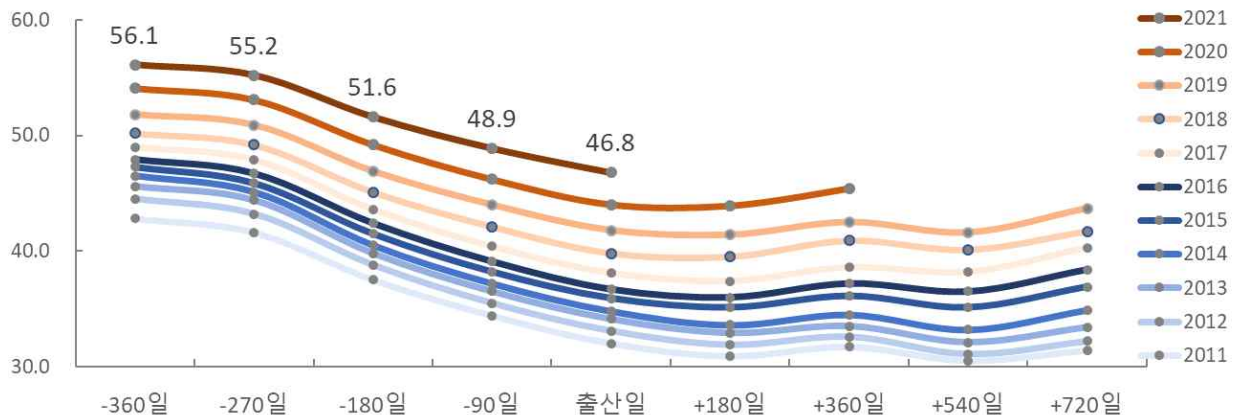
'21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46.8%가 직업을 갖고 있고, 출산 360일 전 (56.1%)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3%p 낮음

□ '21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46.8%가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산 360일 전 (56.1%)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3%p 하락함

○ 전년대비 출산 모(母)의 출산일 기준 직업 보유 비중은 2.8%p 상승함

□ 출산 모(母)의 출산 전·후 취업 비중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 비중은 출산 전 360일부터 출산일까지 낮아지다가, 출산 후 다시 등락을 보이며 540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임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



<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 비중 >

(단위: %, %p)

		2017	2018	2019	2020	2021 ^P	증감
출산 전	-360일	49.0	50.2	51.8	54.1	56.1	2.0
	-270일	47.9	49.2	50.9	53.1	55.2	2.1
	-180일	43.6	45.1	46.9	49.2	51.6	2.4
	-90일	40.4	42.1	44.0	46.2	48.9	2.7
출산일		38.1	39.8	41.8	44.0	46.8	2.8
출산 후	+180일	37.4	39.5	41.4	43.9	-	-
	+360일	38.6	40.9	42.5	45.4	-	-
	+540일	38.2	40.1	41.6	-	-	-
	+720일	40.3	41.7	43.7	-	-	-

5. 전체 출산휴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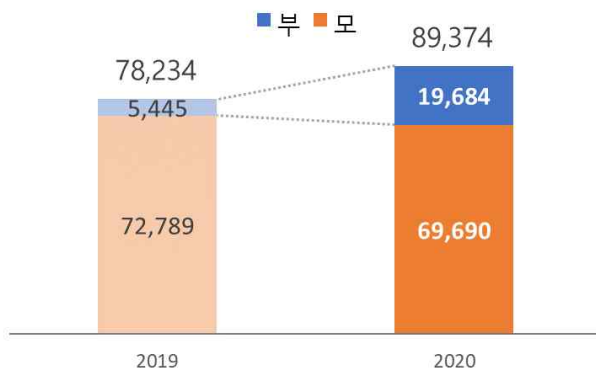
※ 출산휴가자는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석에 유의 바람.

가. 전체 출산휴가자

'20년 출산휴가자는 전년보다 14.2% 증가, 모(母)는 감소한 반면, 부(父)는 증가

- '20년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자는 8만 9,374명으로 전년(7만 8,234명)보다 14.2%(1만 1,140명) 증가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는 1만 9,684명으로 전년(5,445명)보다 261.5% (1만 4,239명) 증가함
 -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19.10.1.)
 - 출산휴가자 중 모(母)는 6만 9,690명으로 전년(7만 2,789명)보다 4.3%(-3,099명) 감소함
- '20년 출산휴가자(8만 9,374명) 중 모(母)는 78.0%로 부(父, 22.0%)의 3.5배임

< 전체 출산휴가자 수(명) >



< 부(父) 및 모(母)의 비중(%) >



< 전체 출산휴가자 수 >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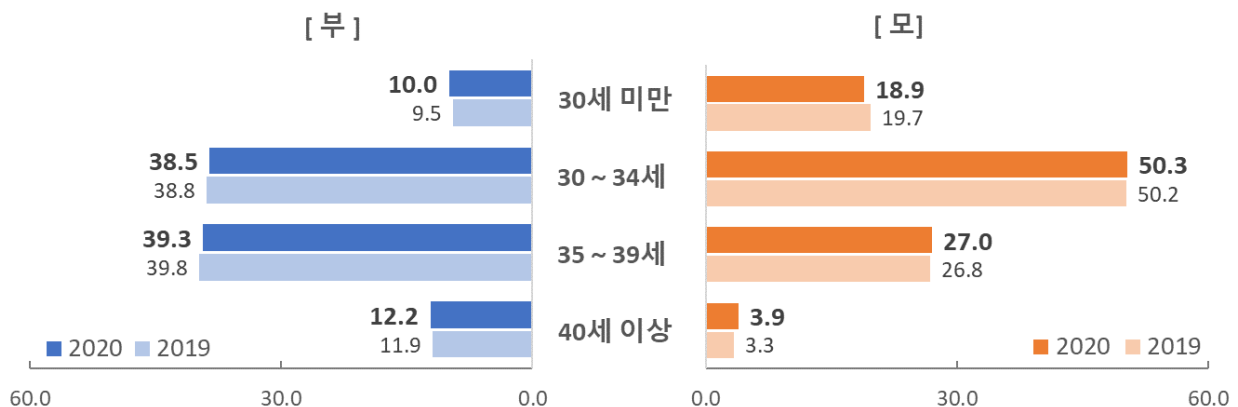
		2019	2020	증감	증감률
계		78,234	89,374	11,140	14.2
부	수	5,445	19,684	14,239	261.5
	비중	7.0	22.0	15.1	-
모	수	72,789	69,690	-3,099	-4.3
	비중	93.0	78.0	-15.1	-

나. 연령별 비중

부(父)는 35~39세(39.3%), 모(母)는 30~34세(50.3%)가 가장 많음

- '20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부(父)의 연령별 구성비는 35~39세가 39.3%로 가장 높고, 30~34세(38.5%), 40세 이상(12.2%) 순임
 - 전년대비 30세 미만(0.5%p)과 40세 이상(0.3%p)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35~39세(-0.4%p) 및 30~34세(-0.3%p) 비중은 하락함
- 출산휴가자 중 모(母)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가 50.3%로 가장 높고, 35~39세(27.0%), 30세 미만(18.9%) 순임
 - 전년대비 40세 이상(0.6%p), 35~39세(0.2%p), 30~34세(0.1%p)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30세 미만(0.8%p) 비중은 하락함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연령별 출산휴가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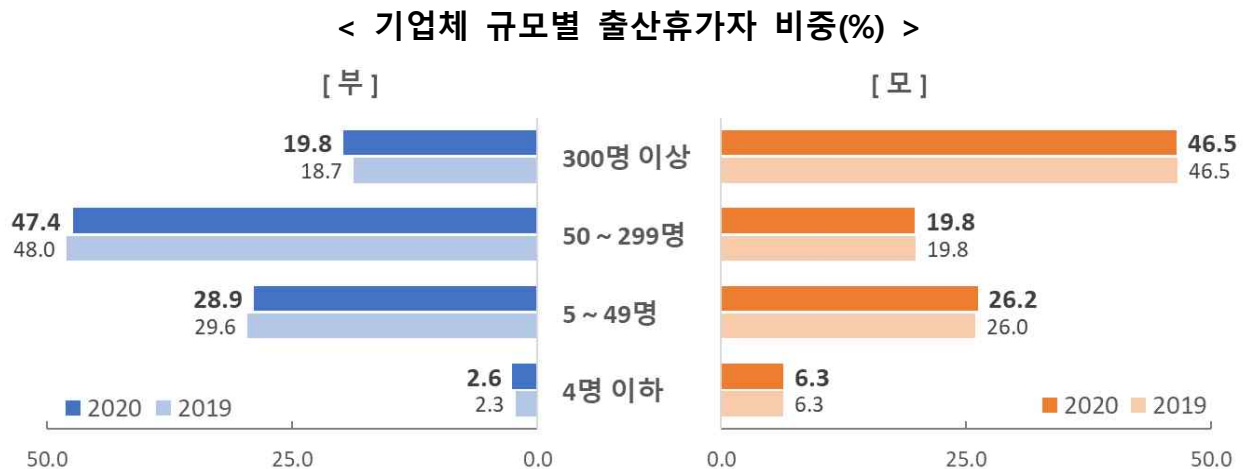
(단위: 명, %, %p)

		2019		2020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5,445	72,789	19,684	69,690	14,239	-3,0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세 미만		9.5	19.7	10.0	18.9	0.5	-0.8
30~34세		38.8	50.2	38.5	50.3	-0.3	0.1
35~39세		39.8	26.8	39.3	27.0	-0.4	0.2
40세 이상		11.9	3.3	12.2	3.9	0.3	0.6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부(父)는 50~299명(47.4%)인 기업에, 모(母)는 300명 이상(46.5%)인 기업에 소속 비중이 가장 높음

- '20년 출산휴가자 중 부(父)의 47.4%가 종사자 규모 50~299명인 기업에 소속되었고, 5~49명(28.9%), 300명 이상(19.8%) 순임
 - 전년대비 300명 이상(1.1%p)과 4명 이하(0.3%p) 기업에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5~49명(-0.7%p) 및 50~299명(-0.6%p) 기업에 소속 비중은 하락함
- 출산휴가를 한 모(母)는 300명인 이상 기업에 소속 비중이 46.5%로 가장 높았고, 5~49명(26.2%), 50~299명(19.8%) 순임
 - 전년대비 5~49명(0.2%p)인 기업 소속 비중은 상승한 반면, 50~299명(-0.1%p)인 기업에 소속된 비중은 하락함



<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명, %, %p)

		2019		2020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5,445	72,789	19,684	69,690	14,239	-3,0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	-
300명 이상		18.7	46.5	19.8	46.5	1.1	0.0
50~299명		48.0	19.8	47.4	19.8	-0.6	-0.1
5~49명		29.6	26.0	28.9	26.2	-0.7	0.2
4명 이하		2.3	6.3	2.6	6.3	0.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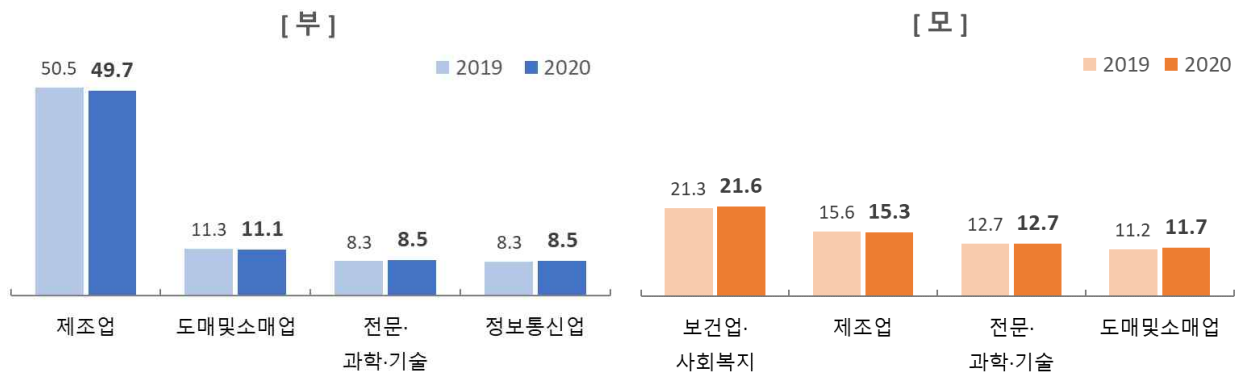
* 기업체 규모 '미상' 포함

라. 종사 산업별 비중

부(父)는 제조업(49.7%), 모(母)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21.6%)에 가장 많이 종사함

- '20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부(父)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49.7%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11.1%), 전문·과학·기술(8.5%) 순임
- 출산휴가자 중 모(母)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이 21.6%로 가장 높고, 제조업(15.3%), 전문·과학·기술(12.7%) 순임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 산업별 출산휴가자 비중 >

(단위: %)

		2019		2020		증감	
		부	모	부	모	부	모
계	수	5,445	72,789	19,684	69,690	14,239	-3,099
	비중	100.0	100.0	100.0	100.0	0.0	0.0
제조업		50.5	15.6	49.7	15.3	-0.8	-0.3
건설업		3.1	2.4	3.3	2.2	0.2	-0.2
도매 및 소매업		11.3	11.2	11.1	11.7	-0.3	0.5
운수 및 창고업		2.9	3.1	3.2	2.9	0.3	-0.1
숙박및음식점업		1.1	1.4	1.1	1.5	0.0	0.1
정보통신업		8.3	5.3	8.5	5.5	0.2	0.2
금융 및 보험업		1.8	9.5	2.2	9.0	0.3	-0.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	12.7	8.5	12.7	0.2	0.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4.9	6.3	4.7	6.1	-0.3	-0.3
교육 서비스업		0.6	4.2	0.6	4.3	-0.1	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21.3	3.2	21.6	0.4	0.4
그 외 기타*		4.3	6.9	4.0	7.0	-0.3	0.1

* 기타(농림어업, 공공행정, 국제·외국기관, 산업분류 미상) 등 포함됨

통 계 표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1-1. 전체 육아휴직자	30
1-2. 연령별 비중	31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32
1-4. 종사 산업별 비중	33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4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35
2-1-3. 연령별 비중	36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37
2-1-5. 종사 산업별 비중	38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39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40
2-2-3. 연령별 비중	41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42
2-2-5. 종사 산업별 비중	43

2-3.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2-3-1. 육아휴직 사용률	44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45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46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47

3. 전 기간($t \sim t+9$ 년) 육아휴직 행태(1자녀 부모)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48
3-2. 육아휴직 분할사용 비중	48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49

5. 전체 출산휴가자 수

5-1. 전체 출산휴가자	51
5-2. 연령별 비중	51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52
5-4. 종사 산업별 비중	52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1-1. 전체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부	모
2010	72,967	1,967	71,000
2011	93,895	3,053	90,842
2012	104,996	3,691	101,305
2013	111,083	4,498	106,585
2014	124,317	6,219	118,098
2015	136,560	8,220	128,340
2016	140,403	11,965	128,438
2017	142,038	18,160	123,878
2018	153,741	25,062	128,679
2019	163,256	32,051	131,205
2020	171,959	38,813	133,146
2021 ^p	173,631	41,910	131,721

1-2. 연령별 비중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32.1	51.8	14.5	1.7
부	100.0	7.8	37.5	40.6	14.2
모	100.0	32.7	52.1	13.8	1.3
< 2011 >					
계	100.0	27.4	53.8	16.4	2.4
부	100.0	5.8	34.3	42.1	17.9
모	100.0	28.1	54.4	15.5	1.9
< 2012 >					
계	100.0	23.7	54.8	18.6	2.9
부	100.0	4.6	33.2	42.2	20.0
모	100.0	24.4	55.5	17.7	2.3
< 2013 >					
계	100.0	20.0	55.4	21.0	3.6
부	100.0	4.4	31.6	42.4	21.5
모	100.0	20.6	56.4	20.1	2.8
< 2014 >					
계	100.0	17.4	52.4	24.9	5.3
부	100.0	3.0	29.4	42.1	25.5
모	100.0	18.2	53.7	24.0	4.2
< 2015 >					
계	100.0	16.4	49.3	27.9	6.4
부	100.0	3.4	26.9	42.4	27.2
모	100.0	17.3	50.8	26.9	5.0
< 2016 >					
계	100.0	15.1	46.5	30.7	7.6
부	100.0	3.1	27.1	43.7	26.1
모	100.0	16.3	48.3	29.5	5.9
< 2017 >					
계	100.0	13.9	42.5	34.2	9.5
부	100.0	3.4	25.5	44.5	26.6
모	100.0	15.4	45.0	32.6	7.0
< 2018 >					
계	100.0	12.3	38.9	36.8	11.9
부	100.0	3.3	23.8	45.1	27.8
모	100.0	14.1	41.9	35.2	8.8
< 2019 >					
계	100.0	11.0	36.9	37.8	14.3
부	100.0	3.6	21.3	45.1	30.0
모	100.0	12.8	40.7	36.1	10.5
< 2020 >					
계	100.0	9.8	35.4	37.6	17.2
부	100.0	3.4	20.5	43.4	32.7
모	100.0	11.7	39.8	35.9	12.7
< 2021 ^P >					
계	100.0	9.2	35.2	36.7	18.9
부	100.0	3.2	20.0	41.8	34.9
모	100.0	11.1	40.0	35.1	13.8

1-3.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66.7	9.9	17.3	4.6	1.6
부	100.0	67.0	10.8	15.5	5.5	1.3
모	100.0	66.7	9.9	17.3	4.6	1.6
< 2011 >						
계	100.0	65.6	10.3	17.7	5.1	1.2
부	100.0	69.9	9.7	14.9	4.8	0.7
모	100.0	65.5	10.4	17.8	5.1	1.2
< 2012 >						
계	100.0	67.3	11.0	16.0	4.2	1.5
부	100.0	72.0	10.1	12.3	4.6	1.1
모	100.0	67.1	11.0	16.1	4.2	1.5
< 2013 >						
계	100.0	68.2	11.3	15.4	3.9	1.3
부	100.0	73.3	10.0	11.5	4.1	1.1
모	100.0	67.9	11.4	15.5	3.9	1.3
< 2014 >						
계	100.0	68.2	11.9	15.3	3.7	0.9
부	100.0	72.5	10.9	11.9	3.8	1.0
모	100.0	68.0	12.0	15.5	3.7	0.8
< 2015 >						
계	100.0	67.8	12.5	15.2	3.9	0.7
부	100.0	72.6	12.6	10.9	3.4	0.6
모	100.0	67.4	12.5	15.5	3.9	0.7
< 2016 >						
계	100.0	68.2	12.5	14.9	3.6	0.8
부	100.0	72.7	12.3	10.1	3.7	1.2
모	100.0	67.8	12.5	15.3	3.6	0.7
< 2017 >						
계	100.0	67.8	13.1	14.9	3.7	0.6
부	100.0	73.7	12.5	9.7	3.4	0.7
모	100.0	66.9	13.1	15.6	3.8	0.6
< 2018 >						
계	100.0	66.6	13.4	15.4	3.9	0.7
부	100.0	72.0	13.4	10.1	3.5	1.0
모	100.0	65.5	13.4	16.4	4.0	0.7
< 2019 >						
계	100.0	65.1	13.9	16.2	4.2	0.6
부	100.0	70.5	14.2	11.0	3.7	0.5
모	100.0	63.8	13.8	17.5	4.4	0.6
< 2020 >						
계	100.0	63.8	14.2	16.9	4.6	0.5
부	100.0	68.7	15.1	12.0	3.8	0.4
모	100.0	62.3	14.0	18.3	4.8	0.5
< 2021 ^P >						
계	100.0	64.5	14.2	16.2	4.5	0.7
부	100.0	71.0	14.5	10.5	3.2	0.8
모	100.0	62.4	14.1	18.0	4.9	0.6

1-4. 종사 산업별 비중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11.0	2.4	6.3	2.4	1.1	4.5	10.4	6.4	5.8	15.0	16.9	13.7	4.0
부	100.0	12.6	3.5	5.7	3.2	1.1	7.8	1.7	8.3	3.0	35.5	9.3	1.7	6.7
모	100.0	11.0	2.3	6.3	2.4	1.1	4.4	10.6	6.4	5.9	14.5	17.1	14.0	4.0
< 2011 >														
계	100.0	8.9	2.3	6.0	2.3	1.0	4.5	9.5	9.8	5.4	15.0	16.6	14.5	4.2
부	100.0	10.9	3.2	5.3	3.9	1.0	8.7	2.4	11.2	3.2	34.3	7.9	1.9	6.1
모	100.0	8.9	2.3	6.0	2.3	1.0	4.3	9.7	9.8	5.5	14.3	16.9	14.9	4.1
< 2012 >														
계	100.0	12.0	2.0	5.9	2.4	0.9	4.4	9.8	7.2	5.6	15.2	16.2	14.3	4.3
부	100.0	12.7	2.8	4.3	3.7	1.4	7.6	2.8	10.2	2.7	34.2	8.8	1.8	7.0
모	100.0	12.0	1.9	5.9	2.3	0.9	4.3	10.0	7.1	5.7	14.5	16.4	14.8	4.1
< 2013 >														
계	100.0	10.0	1.7	5.9	2.3	1.0	4.4	9.8	9.6	5.3	15.2	16.2	14.5	4.1
부	100.0	11.2	2.9	5.1	4.1	0.9	7.5	3.0	13.1	3.8	31.7	8.0	1.9	6.8
모	100.0	9.9	1.7	5.9	2.3	1.0	4.3	10.0	9.5	5.4	14.5	16.6	15.0	4.0
< 2014 >														
계	100.0	9.9	1.6	6.1	2.5	1.1	4.5	9.6	9.9	5.8	14.9	15.3	15.2	3.7
부	100.0	13.1	3.0	5.7	4.4	1.4	6.8	3.4	13.2	3.6	29.3	7.3	2.3	6.5
모	100.0	9.7	1.5	6.2	2.4	1.1	4.4	9.9	9.8	5.9	14.1	15.7	15.9	3.5
< 2015 >														
계	100.0	12.1	1.7	6.9	2.4	0.8	4.7	9.7	8.1	5.6	14.5	14.8	15.1	3.5
부	100.0	17.0	3.0	6.4	3.6	1.1	8.5	3.6	10.4	3.9	26.4	7.4	2.7	5.9
모	100.0	11.8	1.7	7.0	2.3	0.8	4.5	10.1	8.0	5.7	13.8	15.3	15.9	3.3
< 2016 >														
계	100.0	12.4	2.0	7.0	2.3	0.9	4.4	9.5	8.0	5.7	14.7	14.7	14.9	3.5
부	100.0	19.5	7.9	6.8	2.9	1.0	7.1	3.4	9.8	4.1	22.7	6.1	2.6	6.0
모	100.0	11.7	1.5	7.1	2.2	0.8	4.2	10.0	7.8	5.9	13.9	15.5	16.0	3.2
< 2017 >														
계	100.0	13.1	1.8	7.4	2.3	1.0	4.5	8.7	8.8	5.4	15.0	14.0	14.6	3.5
부	100.0	25.5	4.0	7.9	3.2	1.4	6.2	3.3	11.8	3.6	19.9	5.6	2.5	5.0
모	100.0	11.3	1.5	7.4	2.1	0.9	4.3	9.5	8.4	5.6	14.3	15.2	16.3	3.3
< 2018 >														
계	100.0	11.3	2.0	7.3	2.6	1.1	4.6	8.1	10.7	5.2	15.2	13.4	14.6	4.0
부	100.0	19.9	4.7	7.3	4.6	1.3	6.6	3.6	13.9	4.0	20.0	6.0	2.5	5.8
모	100.0	9.7	1.5	7.3	2.2	1.0	4.2	9.0	10.1	5.4	14.2	14.8	17.0	3.6
< 2019 >														
계	100.0	13.2	1.9	7.8	2.5	1.1	4.6	7.4	9.3	5.4	15.5	12.4	14.9	3.8
부	100.0	23.7	3.4	8.6	3.8	1.3	6.2	3.4	10.8	4.7	20.5	5.6	2.8	5.3
모	100.0	10.7	1.6	7.7	2.2	1.1	4.1	8.4	9.0	5.5	14.3	14.1	17.9	3.5
< 2020 >														
계	100.0	13.2	1.9	8.1	2.6	1.4	4.4	6.7	9.5	5.4	16.0	12.0	14.9	3.9
부	100.0	22.7	3.0	7.8	4.4	1.9	5.9	3.2	11.6	6.0	19.6	5.7	3.0	5.3
모	100.0	10.5	1.5	8.2	2.1	1.3	4.0	7.8	8.8	5.3	14.9	13.8	18.4	3.5
< 2021 ^p >														
계	100.0	13.2	1.9	8.2	2.6	1.4	4.1	6.5	9.4	4.9	17.2	11.3	14.7	4.4
부	100.0	22.4	3.1	9.0	4.1	1.8	5.1	3.4	10.6	5.3	21.3	5.3	2.9	5.7
모	100.0	10.3	1.5	7.9	2.1	1.3	3.8	7.5	9.0	4.7	16.0	13.3	18.4	4.0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부	모
2010	10.2	0.1	10.1
2011	12.4	0.2	12.2
2012	13.7	0.2	13.5
2013	15.2	0.2	15.0
2014	16.6	0.3	16.3
2015	17.9	0.4	17.5
2016	19.0	0.6	18.4
2017	20.7	1.2	19.5
2018	23.0	1.6	21.4
2019	25.2	2.1	23.1
2020	27.3	2.5	24.8
2021 ^P	29.3	3.0	26.3

2-1-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단위(명)

	계*	부	모	부&모**	출생아 수
2010	48,012	619	47,393	190	470,171
2011	58,329	855	57,474	240	471,265
2012	66,505	986	65,519	328	484,550
2013	66,529	1,089	65,440	444	436,455
2014	72,157	1,392	70,765	536	435,435
2015	78,395	1,752	76,643	774	438,420
2016	77,089	2,375	74,714	1,108	406,243
2017	73,962	4,126	69,836	2,110	357,771
2018	75,227	5,278	69,949	2,706	326,822
2019	76,136	6,340	69,796	3,644	302,676
2020	74,275	6,871	67,404	4,828	272,337
2021 ^P	76,463	7,878	68,585	5,760	260,562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 '부&모'는 출생아 출생연도에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집계한 것임

2-1-3. 연령별 비중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37.5	51.1	10.6	0.9
부	100.0	12.4	43.8	36.3	7.4
모	100.0	37.8	51.2	10.3	0.8
< 2011 >					
계	100.0	33.6	53.8	11.5	1.1
부	100.0	11.7	45.8	33.7	8.8
모	100.0	33.9	53.9	11.2	1.0
< 2012 >					
계	100.0	29.7	56.7	12.5	1.1
부	100.0	9.4	47.0	35.5	8.1
모	100.0	30.0	56.8	12.1	1.0
< 2013 >					
계	100.0	25.7	58.8	14.1	1.3
부	100.0	8.8	45.4	37.6	8.3
모	100.0	26.0	59.1	13.7	1.2
< 2014 >					
계	100.0	23.5	59.3	15.7	1.4
부	100.0	7.7	47.2	34.9	10.2
모	100.0	23.9	59.5	15.3	1.3
< 2015 >					
계	100.0	23.1	57.4	17.8	1.8
부	100.0	7.5	44.5	37.6	10.4
모	100.0	23.4	57.6	17.4	1.6
< 2016 >					
계	100.0	21.8	56.0	20.1	2.1
부	100.0	8.0	44.4	37.7	9.9
모	100.0	22.2	56.4	19.5	1.9
< 2017 >					
계	100.0	21.0	53.1	23.4	2.5
부	100.0	8.7	42.9	38.7	9.7
모	100.0	21.8	53.7	22.5	2.0
< 2018 >					
계	100.0	19.6	51.5	26.0	3.0
부	100.0	8.4	40.0	41.1	10.5
모	100.0	20.4	52.4	24.8	2.4
< 2019 >					
계	100.0	18.0	51.2	27.3	3.6
부	100.0	9.2	37.1	42.3	11.4
모	100.0	18.8	52.4	25.9	2.9
< 2020 >					
계	100.0	17.1	51.3	27.5	4.1
부	100.0	9.2	38.0	41.6	11.3
모	100.0	17.9	52.7	26.1	3.3
< 2021 ^P >					
계	100.0	15.7	51.6	27.9	4.8
부	100.0	8.3	38.0	40.1	13.7
모	100.0	16.6	53.2	26.5	3.7

2-1-4.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63.9	10.8	18.9	5.0	1.4
부	100.0	56.7	13.9	19.7	8.2	1.5
모	100.0	64.0	10.7	18.9	5.0	1.4
< 2011 >						
계	100.0	62.9	11.3	19.2	5.6	1.0
부	100.0	62.0	11.7	18.7	6.7	0.9
모	100.0	62.9	11.3	19.3	5.5	1.0
< 2012 >						
계	100.0	64.8	11.9	17.5	4.4	1.4
부	100.0	63.5	12.2	16.7	6.4	1.2
모	100.0	64.8	11.9	17.5	4.4	1.4
< 2013 >						
계	100.0	65.7	12.3	16.8	4.0	1.2
부	100.0	64.5	11.8	17.5	5.5	0.7
모	100.0	65.8	12.3	16.7	4.0	1.2
< 2014 >						
계	100.0	65.7	13.2	16.5	3.9	0.8
부	100.0	66.0	13.4	14.8	5.3	0.4
모	100.0	65.7	13.2	16.5	3.9	0.8
< 2015 >						
계	100.0	65.6	13.7	16.3	3.9	0.5
부	100.0	65.4	15.6	13.5	5.0	0.6
모	100.0	65.6	13.7	16.3	3.8	0.5
< 2016 >						
계	100.0	65.7	13.9	16.1	3.7	0.6
부	100.0	65.4	14.6	13.4	5.9	0.8
모	100.0	65.7	13.8	16.2	3.7	0.6
< 2017 >						
계	100.0	65.3	14.4	16.0	3.8	0.5
부	100.0	70.1	12.9	11.8	4.8	0.4
모	100.0	65.0	14.5	16.3	3.7	0.5
< 2018 >						
계	100.0	64.4	14.7	16.5	3.9	0.5
부	100.0	70.2	13.8	11.6	4.0	0.4
모	100.0	64.0	14.7	16.9	3.9	0.5
< 2019 >						
계	100.0	62.7	15.3	17.4	4.1	0.5
부	100.0	66.8	15.4	12.7	4.7	0.5
모	100.0	62.4	15.2	17.9	4.1	0.5
< 2020 >						
계	100.0	62.3	15.3	17.9	4.1	0.4
부	100.0	67.1	15.4	13.1	4.0	0.3
모	100.0	61.8	15.3	18.4	4.1	0.4
< 2021 ^P >						
계	100.0	62.5	15.3	17.1	4.3	0.8
부	100.0	69.4	13.9	11.9	3.6	1.2
모	100.0	61.8	15.4	17.7	4.4	0.7

2-1-5. 종사 산업별 비중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12.1	2.5	6.7	2.6	1.3	4.5	10.9	6.8	6.4	13.6	12.8	15.7	4.2
부	100.0	14.7	4.7	7.3	4.0	1.0	8.1	1.5	10.8	3.4	28.1	5.5	2.1	8.9
모	100.0	12.0	2.5	6.6	2.6	1.3	4.5	11.1	6.8	6.4	13.4	12.9	15.8	4.2
< 2011 >														
계	100.0	9.9	2.3	6.3	2.5	1.1	4.5	10.1	10.5	6.0	13.0	12.9	16.6	4.3
부	100.0	15.0	3.9	6.7	5.0	1.2	8.4	1.6	12.0	4.4	25.7	7.4	2.0	6.7
모	100.0	9.8	2.3	6.3	2.5	1.1	4.4	10.2	10.5	6.1	12.8	13.0	16.8	4.2
< 2012 >														
계	100.0	13.1	2.0	6.2	2.5	1.0	4.5	10.3	7.6	6.2	13.4	12.6	16.4	4.3
부	100.0	15.9	3.5	5.6	4.6	1.7	7.7	1.5	14.2	2.6	26.0	6.2	2.6	7.8
모	100.0	13.0	2.0	6.2	2.5	1.0	4.4	10.4	7.5	6.2	13.2	12.7	16.6	4.2
< 2013 >														
계	100.0	10.8	1.7	6.2	2.4	1.1	4.5	10.2	10.1	5.7	13.9	12.8	16.4	4.2
부	100.0	14.3	3.7	6.1	4.8	1.2	9.0	1.7	13.4	4.0	27.1	6.2	2.1	6.4
모	100.0	10.8	1.7	6.2	2.4	1.1	4.4	10.4	10.0	5.7	13.7	13.0	16.6	4.1
< 2014 >														
계	100.0	10.7	1.6	6.5	2.4	1.2	4.7	9.8	10.4	5.7	13.8	12.6	16.9	3.8
부	100.0	17.7	3.5	6.5	4.2	0.9	6.7	3.2	12.2	4.9	25.1	5.5	2.7	6.8
모	100.0	10.6	1.6	6.5	2.4	1.2	4.6	9.9	10.3	5.7	13.5	12.7	17.2	3.8
< 2015 >														
계	100.0	13.2	1.7	7.4	2.4	0.9	4.7	9.8	8.6	5.4	13.4	12.2	16.8	3.4
부	100.0	21.2	3.5	7.4	3.4	1.5	8.4	2.9	10.3	4.7	22.9	5.5	2.7	5.7
모	100.0	13.0	1.7	7.4	2.4	0.9	4.7	9.9	8.5	5.5	13.2	12.4	17.2	3.4
< 2016 >														
계	100.0	13.0	1.7	7.6	2.4	0.9	4.5	9.8	8.6	5.6	13.3	12.3	16.9	3.4
부	100.0	22.5	7.2	7.7	3.8	1.2	7.3	2.4	10.6	4.6	19.7	4.1	2.4	6.5
모	100.0	12.7	1.5	7.6	2.4	0.9	4.4	10.1	8.5	5.6	13.1	12.5	17.4	3.3
< 2017 >														
계	100.0	13.0	1.7	8.0	2.4	1.1	4.7	9.2	9.5	5.2	13.6	11.6	16.6	3.5
부	100.0	24.1	4.2	11.2	3.2	2.0	6.3	3.2	14.6	4.0	15.9	3.5	2.6	5.1
모	100.0	12.3	1.5	7.8	2.4	1.1	4.6	9.5	9.2	5.3	13.5	12.1	17.5	3.4
< 2018 >														
계	100.0	11.4	1.7	8.0	2.6	1.1	4.7	8.7	11.6	4.9	13.4	11.0	16.9	3.9
부	100.0	21.8	4.6	9.1	4.8	1.6	6.8	3.2	16.6	4.5	15.4	3.2	2.5	5.9
모	100.0	10.6	1.5	7.9	2.5	1.1	4.5	9.1	11.3	5.0	13.2	11.6	18.0	3.7
< 2019 >														
계	100.0	12.7	1.7	8.5	2.6	1.2	4.7	7.9	10.4	4.9	13.9	10.4	17.4	3.8
부	100.0	24.7	3.7	10.7	4.0	1.7	6.4	3.2	13.3	4.9	15.9	3.6	2.7	5.2
모	100.0	11.7	1.6	8.3	2.4	1.1	4.5	8.3	10.1	4.9	13.7	11.1	18.7	3.6
< 2020 >														
계	100.0	12.6	1.7	8.5	2.5	1.4	4.5	7.2	10.4	4.9	14.5	10.4	17.5	3.8
부	100.0	23.4	4.1	9.2	4.7	2.2	5.6	2.6	13.6	6.0	16.9	3.9	2.9	4.8
모	100.0	11.5	1.5	8.4	2.3	1.3	4.4	7.7	10.1	4.7	14.2	11.1	19.0	3.7
< 2021 ^p >														
계	100.0	12.1	1.7	8.5	2.6	1.4	4.4	7.1	10.6	4.4	15.3	9.9	17.4	4.5
부	100.0	22.4	3.6	9.8	4.3	2.3	4.8	2.7	12.7	5.2	19.0	3.7	2.9	6.4
모	100.0	10.9	1.5	8.4	2.5	1.3	4.3	7.6	10.4	4.3	14.9	10.6	19.1	4.3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부	모
2010	85.5	60.6	24.9
2011	88.0	61.8	26.1
2012	90.6	63.2	27.4
2013	92.7	64.4	28.3
2014	94.4	65.3	29.1
2015	96.2	66.0	30.1
2016	98.2	67.1	31.1
2017	99.6	67.4	32.2
2018	106.1	71.2	34.9
2019	109.5	72.8	36.7
2020	111.5	73.1	38.5
2021 ^P	114.5	74.1	40.4

*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년도 육아휴직 대상자 / 년도 출생아)*100임

2-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명)

	계*	부	모	출생아 수
2010	402,213	285,106	117,107	470,171
2011	414,577	291,398	123,179	471,265
2012	438,938	306,039	132,899	484,550
2013	404,481	280,906	123,575	436,455
2014	411,167	284,481	126,686	435,435
2015	421,604	289,500	132,104	438,420
2016	398,966	272,663	126,303	406,243
2017	356,402	241,208	115,194	357,771
2018	346,914	232,690	114,224	326,822
2019	331,409	220,350	111,059	302,676
2020	303,693	198,971	104,722	272,337
2021 ^P	298,329	193,119	105,210	260,562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2-2-3. 연령별 비중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00.0	21.6	49.8	23.9	4.8
부	100.0	16.4	48.8	28.5	6.3
모	100.0	34.2	52.2	12.4	1.2
< 2011 >					
계	100.0	20.2	50.1	24.2	5.4
부	100.0	15.6	48.5	28.8	7.1
모	100.0	31.3	53.9	13.3	1.4
< 2012 >					
계	100.0	18.2	51.4	24.6	5.8
부	100.0	13.9	49.3	29.1	7.7
모	100.0	28.0	56.3	14.3	1.5
< 2013 >					
계	100.0	15.9	52.1	25.6	6.4
부	100.0	12.2	49.4	29.9	8.5
모	100.0	24.2	58.2	15.9	1.6
< 2014 >					
계	100.0	14.4	52.5	26.4	6.8
부	100.0	11.0	49.7	30.4	9.0
모	100.0	22.1	58.7	17.4	1.8
< 2015 >					
계	100.0	14.1	50.6	28.0	7.3
부	100.0	10.7	47.8	31.9	9.6
모	100.0	21.5	56.8	19.6	2.1
< 2016 >					
계	100.0	13.6	48.5	30.2	7.8
부	100.0	10.2	45.4	34.0	10.3
모	100.0	20.7	55.0	21.8	2.4
< 2017 >					
계	100.0	13.2	45.3	32.9	8.6
부	100.0	9.8	42.1	36.7	11.4
모	100.0	20.3	52.2	24.9	2.7
< 2018 >					
계	100.0	13.0	43.1	34.8	9.2
부	100.0	9.9	39.5	38.4	12.2
모	100.0	19.1	50.4	27.4	3.1
< 2019 >					
계	100.0	12.2	41.9	35.9	10.0
부	100.0	9.4	37.7	39.6	13.3
모	100.0	17.7	50.2	28.5	3.6
< 2020 >					
계	100.0	11.8	41.9	35.5	10.9
부	100.0	9.0	37.4	39.2	14.4
모	100.0	17.0	50.5	28.5	4.0
< 2021 ^P >					
계	100.0	11.0	41.8	35.6	11.6
부	100.0	8.5	36.7	39.5	15.3
모	100.0	15.8	51.1	28.6	4.6

2-2-4.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00.0	47.4	19.0	24.8	7.6	1.3
부	100.0	44.4	21.2	25.6	7.6	1.2
모	100.0	54.5	13.6	22.9	7.5	1.6
< 2011 >						
계	100.0	47.7	18.9	24.6	8.0	0.8
부	100.0	45.1	21.2	25.2	7.9	0.6
모	100.0	54.0	13.6	23.2	8.1	1.1
< 2012 >						
계	100.0	48.3	18.8	24.1	7.9	0.9
부	100.0	45.4	21.0	24.9	8.1	0.7
모	100.0	54.9	13.8	22.4	7.5	1.4
< 2013 >						
계	100.0	49.0	18.7	23.4	7.9	0.9
부	100.0	46.1	21.0	24.1	8.1	0.7
모	100.0	55.8	13.6	21.7	7.5	1.4
< 2014 >						
계	100.0	49.1	18.8	23.3	8.0	0.8
부	100.0	46.2	21.0	24.0	8.2	0.7
모	100.0	55.7	13.9	21.8	7.5	1.2
< 2015 >						
계	100.0	48.9	18.5	23.3	8.5	0.7
부	100.0	45.9	20.6	24.1	8.8	0.6
모	100.0	55.5	13.9	21.7	7.9	1.0
< 2016 >						
계	100.0	48.5	18.2	23.3	9.3	0.8
부	100.0	45.5	20.2	24.0	9.6	0.7
모	100.0	55.0	13.7	21.6	8.7	1.0
< 2017 >						
계	100.0	48.6	17.7	22.9	9.9	0.9
부	100.0	45.7	19.7	23.6	10.3	0.8
모	100.0	54.5	13.6	21.6	9.2	1.1
< 2018 >						
계	100.0	47.5	17.2	23.4	11.1	0.9
부	100.0	44.8	19.1	24.0	11.4	0.7
모	100.0	52.8	13.3	22.0	10.6	1.2
< 2019 >						
계	100.0	47.6	17.0	23.2	11.2	0.9
부	100.0	45.3	18.8	23.8	11.4	0.7
모	100.0	52.1	13.6	22.2	10.8	1.2
< 2020 >						
계	100.0	48.5	16.6	23.1	11.2	0.5
부	100.0	46.3	18.2	23.5	11.5	0.4
모	100.0	52.7	13.6	22.3	10.6	0.8
< 2021 ^P >						
계	100.0	49.1	16.0	21.4	11.0	2.4
부	100.0	47.2	17.3	21.5	11.1	2.9
모	100.0	52.6	13.6	21.4	10.9	1.6

2-2-5. 종사 산업별 비중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시설 지원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 복지업	기타*
< 2010 >														
계	100.0	24.3	6.7	10.5	3.2	1.2	5.3	5.5	9.8	3.8	8.3	6.9	7.7	6.7
부	100.0	29.8	7.9	11.4	3.7	1.3	5.9	4.1	10.8	3.4	7.4	3.6	3.2	7.5
모	100.0	11.0	3.6	8.4	2.2	1.1	4.0	9.0	7.4	4.5	10.7	14.8	18.4	4.9
< 2011 >														
계	100.0	22.6	6.3	10.0	3.2	1.3	5.2	5.4	13.1	3.8	8.0	6.8	8.0	6.2
부	100.0	28.0	7.6	10.8	3.6	1.4	5.7	4.0	14.4	3.5	7.1	3.6	3.3	6.9
모	100.0	9.8	3.3	8.1	2.2	1.1	4.0	8.7	9.9	4.6	10.2	14.5	19.0	4.5
< 2012 >														
계	100.0	26.4	6.0	10.2	3.1	1.3	5.0	5.6	9.9	3.9	8.1	6.7	8.0	6.0
부	100.0	32.4	7.3	11.1	3.4	1.3	5.5	4.1	10.8	3.5	7.0	3.5	3.3	6.6
모	100.0	12.5	3.1	8.2	2.2	1.1	3.8	8.8	7.6	4.8	10.6	13.9	18.7	4.6
< 2013 >														
계	100.0	24.7	5.7	10.2	3.0	1.4	5.2	5.6	11.7	3.8	8.2	6.6	7.9	5.9
부	100.0	30.7	6.9	11.2	3.3	1.5	5.8	4.1	12.7	3.5	7.0	3.4	3.3	6.5
모	100.0	11.0	2.8	8.2	2.2	1.3	3.8	8.9	9.6	4.7	10.8	13.8	18.3	4.6
< 2014 >														
계	100.0	24.9	5.5	10.3	2.9	1.6	5.1	5.6	11.9	3.9	8.1	6.5	8.0	5.9
부	100.0	31.0	6.7	11.2	3.2	1.7	5.6	4.2	12.7	3.5	6.9	3.4	3.4	6.6
모	100.0	11.2	2.7	8.5	2.1	1.5	4.0	8.8	9.9	4.8	10.7	13.4	18.2	4.3
< 2015 >														
계	100.0	26.6	5.2	11.0	2.7	1.6	5.3	5.5	10.2	4.0	8.1	6.3	8.0	5.3
부	100.0	32.8	6.4	11.8	2.9	1.7	5.9	4.1	11.0	3.7	7.0	3.4	3.4	5.8
모	100.0	13.1	2.7	9.3	2.1	1.5	4.1	8.5	8.5	4.7	10.6	12.8	18.0	4.1
< 2016 >														
계	100.0	26.2	5.3	11.5	2.8	2.0	5.1	5.6	9.8	4.0	8.1	6.4	8.1	5.3
부	100.0	32.2	6.5	12.3	3.1	2.0	5.7	4.3	10.5	3.6	7.0	3.4	3.5	5.9
모	100.0	13.0	2.6	9.6	2.2	1.8	3.8	8.6	8.5	4.8	10.5	12.7	17.8	4.1
< 2017 >														
계	100.0	25.1	5.2	11.7	2.8	2.3	5.0	5.5	10.2	4.0	8.5	6.4	8.1	5.3
부	100.0	31.1	6.4	12.5	3.0	2.3	5.6	4.3	10.8	3.7	7.4	3.5	3.6	5.8
모	100.0	12.6	2.5	10.0	2.1	2.2	4.0	8.1	8.8	4.6	10.9	12.3	17.6	4.2
< 2018 >														
계	100.0	22.9	5.3	11.7	3.0	2.6	5.0	5.3	11.8	3.9	8.3	6.4	8.2	5.6
부	100.0	28.5	6.5	12.5	3.4	2.6	5.5	4.2	12.5	3.7	7.2	3.6	3.6	6.2
모	100.0	11.4	2.9	10.3	2.3	2.6	3.9	7.6	10.4	4.4	10.5	11.9	17.4	4.5
< 2019 >														
계	100.0	23.4	5.5	11.8	2.9	2.8	4.9	5.2	10.7	4.1	8.7	6.1	8.4	5.4
부	100.0	29.0	6.9	12.5	3.3	2.7	5.5	4.2	11.2	3.9	7.6	3.5	3.7	5.9
모	100.0	12.2	2.8	10.5	2.2	2.8	3.9	7.2	9.6	4.4	11.1	11.2	17.6	4.6
< 2020 >														
계	100.0	22.1	5.5	11.9	3.0	2.8	4.9	5.1	10.8	4.0	9.5	6.2	8.8	5.3
부	100.0	27.6	7.0	12.6	3.5	2.7	5.4	4.2	11.4	3.9	8.3	3.6	4.0	5.8
모	100.0	11.8	2.7	10.6	2.2	2.8	4.0	6.7	9.7	4.2	11.8	11.2	18.0	4.4
< 2021 ^P >														
계	100.0	20.8	5.3	11.6	3.1	2.5	5.0	5.3	10.8	3.6	10.0	6.2	8.7	7.3
부	100.0	26.0	6.8	12.2	3.5	2.3	5.5	4.4	11.3	3.5	8.8	3.7	3.8	8.2
모	100.0	11.4	2.6	10.4	2.3	2.7	4.0	6.8	9.9	3.9	12.1	10.7	17.6	5.7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3-1.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명)

	계*	부	모
2010	11.9	0.2	40.5
2011	14.1	0.3	46.7
2012	15.2	0.3	49.3
2013	16.4	0.4	53.0
2014	17.5	0.5	55.9
2015	18.6	0.6	58.0
2016	19.3	0.9	59.2
2017	20.8	1.7	60.6
2018	21.7	2.3	61.2
2019	23.0	2.9	62.8
2020	24.5	3.5	64.4
2021 ^P	25.6	4.1	65.2

* '계'는 '부'와 '모'의 합임

2-3-2.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0 >					
계	11.9	20.7	12.3	5.3	2.2
부	0.2	0.2	0.2	0.3	0.3
모	40.5	44.7	39.7	33.4	27.8
< 2011 >					
계	14.1	23.3	15.1	6.7	2.8
부	0.3	0.2	0.3	0.3	0.4
모	46.7	50.5	46.7	39.3	31.1
< 2012 >					
계	15.2	24.8	16.7	7.7	2.9
부	0.3	0.2	0.3	0.4	0.3
모	49.3	52.9	49.8	41.9	33.9
< 2013 >					
계	16.4	26.7	18.6	9.0	3.4
부	0.4	0.3	0.4	0.5	0.4
모	53.0	56.9	53.7	45.6	39.0
< 2014 >					
계	17.5	28.7	19.8	10.5	3.7
부	0.5	0.3	0.5	0.6	0.6
모	55.9	60.4	56.6	49.2	39.8
< 2015 >					
계	18.6	30.5	21.1	11.8	4.6
부	0.6	0.4	0.6	0.7	0.7
모	58.0	63.2	58.9	51.4	43.8
< 2016 >					
계	19.3	31.1	22.3	12.9	5.2
부	0.9	0.7	0.9	1.0	0.8
모	59.2	63.4	60.6	53.0	46.0
< 2017 >					
계	20.8	33.1	24.3	14.8	6.0
부	1.7	1.5	1.7	1.8	1.5
모	60.6	65.1	62.4	54.8	46.1
< 2018 >					
계	21.7	32.7	25.9	16.2	7.0
부	2.3	1.9	2.3	2.4	2.0
모	61.2	65.4	63.6	55.6	47.1
< 2019 >					
계	23.0	33.9	28.0	17.5	8.3
부	2.9	2.8	2.8	3.1	2.5
모	62.8	66.6	65.6	57.2	50.2
< 2020 >					
계	24.5	35.5	30.0	19.0	9.2
부	3.5	3.5	3.5	3.7	2.7
모	64.4	67.8	67.2	58.9	53.2
< 2021 ^P >					
계	25.6	36.5	31.7	20.1	10.6
부	4.1	4.0	4.2	4.1	3.6
모	65.2	68.5	67.9	60.5	53.1

2-3-3.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0 >						
계	11.9	16.1	6.8	9.1	7.9	12.3
부	0.2	0.3	0.1	0.2	0.2	0.3
모	40.5	47.6	32.0	33.4	26.8	35.6
< 2011 >						
계	14.1	18.5	8.4	11.0	9.8	18.4
부	0.3	0.4	0.2	0.2	0.2	0.4
모	46.7	54.3	38.7	38.7	32.0	42.9
< 2012 >						
계	15.2	20.3	9.6	11.0	8.5	24.2
부	0.3	0.5	0.2	0.2	0.3	0.6
모	49.3	58.2	42.5	38.6	28.8	50.8
< 2013 >						
계	16.4	22.1	10.8	11.8	8.3	21.1
부	0.4	0.5	0.2	0.3	0.3	0.4
모	53.0	62.4	48.0	40.8	28.2	44.2
< 2014 >						
계	17.5	23.5	12.3	12.4	8.6	16.7
부	0.5	0.7	0.3	0.3	0.3	0.3
모	55.9	65.9	52.9	42.3	28.9	37.4
< 2015 >						
계	18.6	24.9	13.8	13.0	8.5	13.5
부	0.6	0.9	0.5	0.3	0.3	0.6
모	58.0	68.6	57.1	43.6	28.3	31.1
< 2016 >						
계	19.3	26.2	14.7	13.4	7.8	14.8
부	0.9	1.3	0.6	0.5	0.5	1.0
모	59.2	70.7	59.8	44.3	25.1	33.3
< 2017 >						
계	20.8	27.9	16.9	14.5	7.9	11.1
부	1.7	2.6	1.1	0.9	0.8	0.9
모	60.6	72.4	64.4	45.7	24.6	26.2
< 2018 >						
계	21.7	29.4	18.5	15.3	7.5	13.0
부	2.3	3.6	1.6	1.1	0.8	1.3
모	61.2	74.1	67.7	47.0	22.3	27.5
< 2019 >						
계	23.0	30.3	20.6	17.2	8.4	11.7
부	2.9	4.2	2.4	1.5	1.2	1.8
모	62.8	75.2	70.5	50.4	23.6	24.1
< 2020 >						
계	24.5	31.4	22.5	18.9	9.0	17.7
부	3.5	5.0	2.9	1.9	1.2	2.8
모	64.4	75.5	72.5	52.9	25.1	32.8
< 2021 ^P >						
계	25.6	32.6	24.4	20.5	9.9	8.2
부	4.1	6.0	3.3	2.3	1.3	1.7
모	65.2	76.6	73.9	54.1	26.2	29.9

2-3-4.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0 >														
계	11.9	5.9	4.4	7.5	9.7	12.2	10.1	23.5	8.3	20.3	19.5	22.3	24.4	7.5
부	0.2	0.1	0.1	0.1	0.2	0.2	0.3	0.1	0.2	0.2	0.8	0.3	0.1	0.3
모	40.5	44.1	27.6	32.1	49.2	44.7	45.0	49.5	37.3	57.4	50.8	35.3	34.7	34.6
< 2011 >														
계	14.1	6.2	5.1	8.9	11.1	11.4	12.2	26.2	11.3	22.3	22.8	26.5	29.2	9.6
부	0.3	0.2	0.1	0.2	0.4	0.2	0.4	0.1	0.2	0.4	1.1	0.6	0.2	0.3
모	46.7	47.0	31.8	36.3	52.8	44.6	51.6	54.7	49.6	61.1	58.5	41.9	41.1	43.5
< 2012 >														
계	15.2	7.5	5.1	9.2	12.4	12.1	13.5	28.0	11.7	23.9	25.1	28.7	31.2	10.9
부	0.3	0.2	0.2	0.2	0.4	0.4	0.5	0.1	0.4	0.3	1.2	0.6	0.3	0.4
모	49.3	51.2	32.3	37.3	55.0	44.0	57.1	58.2	48.4	63.6	61.6	45.1	43.6	45.8
< 2013 >														
계	16.4	7.2	5.0	9.9	13.2	12.5	14.1	30.2	14.1	24.3	27.9	32.0	34.2	11.6
부	0.4	0.2	0.2	0.2	0.6	0.3	0.6	0.2	0.4	0.5	1.5	0.7	0.2	0.4
모	53.0	52.0	31.8	40.2	57.4	43.8	60.2	62.0	55.4	64.5	67.0	49.6	48.1	47.3
< 2014 >														
계	17.5	7.6	5.2	11.1	14.8	12.5	16.1	30.6	15.4	25.5	29.8	34.2	37.3	11.4
부	0.5	0.3	0.3	0.3	0.6	0.3	0.6	0.4	0.5	0.7	1.8	0.8	0.4	0.5
모	55.9	52.9	32.5	43.0	62.0	43.5	64.7	63.1	58.4	66.6	70.5	53.1	52.8	48.9
< 2015 >														
계	18.6	9.2	6.2	12.4	16.5	10.0	16.6	33.0	15.6	25.1	30.7	35.9	39.1	12.1
부	0.6	0.4	0.3	0.4	0.7	0.5	0.9	0.4	0.6	0.8	2.0	1.0	0.5	0.6
모	58.0	57.6	36.7	45.7	64.2	34.4	66.7	68.0	58.1	68.0	72.1	56.1	55.2	47.6
< 2016 >														
계	19.3	9.6	6.2	12.8	16.8	9.1	16.9	33.7	16.8	27.4	31.8	37.3	40.5	12.4
부	0.9	0.6	1.0	0.5	1.1	0.5	1.1	0.5	0.9	1.1	2.4	1.0	0.6	1.0
모	59.2	57.7	34.2	46.6	64.2	29.9	68.3	69.6	59.4	69.9	73.9	58.4	57.5	47.8
< 2017 >														
계	20.8	10.8	6.6	14.1	18.1	10.2	19.3	34.4	19.4	27.3	33.1	37.8	42.5	13.5
부	1.7	1.3	1.1	1.5	1.8	1.5	1.9	1.3	2.3	1.9	3.7	1.7	1.2	1.5
모	60.6	59.6	36.0	47.1	66.4	29.1	70.1	70.8	63.4	69.5	75.1	59.5	60.1	48.2
< 2018 >														
계	21.7	10.8	7.1	14.8	18.9	9.5	20.4	35.4	21.3	27.4	34.9	37.6	44.9	14.8
부	2.3	1.7	1.6	1.7	3.2	1.4	2.8	1.7	3.0	2.8	4.9	2.0	1.6	2.2
모	61.2	57.2	32.3	47.5	66.7	25.7	71.7	73.3	66.1	69.1	76.9	59.8	63.3	50.0
< 2019 >														
계	23.0	12.5	7.3	16.4	20.1	9.8	21.7	34.7	22.3	27.8	36.5	39.3	47.5	16.0
부	2.9	2.4	1.5	2.4	3.4	1.8	3.4	2.2	3.4	3.6	6.1	3.0	2.1	2.6
모	62.8	60.2	35.0	49.6	69.4	25.2	72.8	72.6	66.5	71.0	77.6	61.9	66.6	50.1
< 2020 >														
계	24.5	14.0	7.7	17.5	20.6	12.1	22.4	34.8	23.6	29.6	37.3	40.9	48.6	17.5
부	3.5	2.9	2.0	2.5	4.7	2.8	3.5	2.1	4.1	5.3	7.0	3.7	2.5	2.9
모	64.4	63.0	35.8	51.4	68.9	29.6	70.9	74.1	66.9	71.8	77.8	63.4	67.9	54.4
< 2021 ^P >														
계	25.6	14.9	8.2	18.9	21.9	14.7	22.3	34.8	25.2	30.8	39.4	41.3	51.5	15.9
부	4.1	3.5	2.2	3.3	4.9	4.1	3.6	2.5	4.6	6.1	8.8	4.1	3.1	3.2
모	65.2	62.4	37.5	52.6	70.6	31.8	69.5	73.1	68.1	71.8	80.4	64.7	70.7	49.3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행태(1자녀 부모)

3-1.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2010	계	74.5	6.3	4.4	4.0	4.1	4.0	10.0	6.0	4.0
	부	17.8	12.2	8.5	8.3	7.5	9.1	14.5	16.1	13.1
	모	79.8	5.7	4.0	3.6	3.8	3.5	9.6	5.1	3.1
2011	계	74.4	5.7	3.9	3.9	4.0	3.4	10.8	6.8	4.6
	부	15.1	10.6	7.5	7.6	8.1	9.6	16.2	17.6	15.9
	모	81.3	5.1	3.5	3.5	3.6	2.7	10.2	5.5	3.3
2012 ^P	계	73.5	5.1	4.0	3.8	3.3	3.6	11.5	7.7	4.5
	부	12.3	9.3	7.5	8.3	9.2	10.8	17.1	20.1	14.1
	모	81.9	4.5	3.5	3.2	2.5	2.6	10.8	6.0	3.2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출생 전 및 자녀 나이가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관계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3-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비중

단위(%)

출생연도	성별	계	미분할 (1회 휴직)	1회 분할 (2회 휴직)	2회 이상 분할 (3회 이상 휴직)
2010	계	100.0	81.5	16.2	2.3
	부	100.0	92.5	7.1	0.5
	모	100.0	80.5	17.1	2.5
2011	계	100.0	81.5	16.0	2.5
	부	100.0	91.6	7.7	0.7
	모	100.0	80.3	17.0	2.7
2012 ^P	계	100.0	82.1	15.6	2.4
	부	100.0	90.9	8.4	0.7
	모	100.0	80.8	16.6	2.6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1)

단위(%)

출산연도	출산 전												출산일
	-360	-330	-300	-270	-240	-210	-180	-150	-120	-90	-60	-30	
2011	42.8	42.4	42.1	41.6	41.0	39.1	37.5	36.2	35.2	34.4	33.5	32.7	32.0
2012	44.5	44.1	43.7	43.2	42.6	40.5	38.8	37.5	36.4	35.5	34.6	33.8	33.1
2013	45.6	45.2	44.8	44.4	43.6	41.6	39.8	38.6	37.5	36.5	35.7	34.8	34.1
2014	46.5	46.0	45.5	45.1	44.4	42.3	40.5	39.2	38.2	37.2	36.3	35.4	34.8
2015	47.3	46.9	46.4	45.9	45.2	43.2	41.5	40.2	39.2	38.2	37.3	36.5	35.9
2016	47.9	47.5	47.1	46.7	46.0	44.0	42.4	41.1	40.1	39.1	38.2	37.4	36.7
2017	49.0	48.7	48.3	47.9	47.3	45.3	43.6	42.4	41.4	40.4	39.5	38.7	38.1
2018	50.2	50.0	49.6	49.2	48.6	46.7	45.1	43.9	43.0	42.1	41.3	40.5	39.8
2019	51.8	51.5	51.2	50.9	50.3	48.5	46.9	45.8	44.9	44.0	43.2	42.4	41.8
2020	54.1	53.8	53.5	53.1	52.5	50.7	49.2	48.1	47.1	46.2	45.4	44.6	44.0
2021 ^P	56.1	55.8	55.5	55.2	54.7	53.0	51.6	50.5	49.6	48.9	48.1	47.4	46.8

4. 출산 전·후 모(母)의 취업비중 (2)

단위(%)

출산 연도	출산 후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60	+690	+720
2011	31.7	31.5	30.9	30.8	30.8	30.9	31.1	31.2	31.3	31.5	31.6	31.7	31.8	31.7	30.6	30.3	30.3	30.5	30.7	30.8	31.0	31.1	31.3	31.4
2012	32.9	32.6	32.0	31.8	31.8	31.9	32.0	32.1	32.3	32.4	32.5	32.6	32.7	32.4	31.3	30.9	31.0	31.1	31.3	31.5	31.7	31.8	32.0	32.2
2013	33.9	33.5	32.9	32.8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7	33.4	32.2	31.8	32.0	32.1	32.3	32.5	32.8	32.9	33.1	33.4
2014	34.5	34.2	33.6	33.5	33.5	33.6	33.8	33.9	34.0	34.2	34.4	34.5	34.6	34.3	33.1	32.8	32.9	33.2	33.4	33.7	34.0	34.3	34.6	34.9
2015	35.7	35.4	35.0	34.9	35.0	35.1	35.3	35.4	35.6	35.8	36.0	36.1	36.3	36.0	34.8	34.6	34.8	35.1	35.4	35.7	36.1	36.3	36.6	36.9
2016	36.6	36.3	35.8	35.8	35.9	36.0	36.1	36.3	36.5	36.7	36.9	37.2	37.4	37.2	36.0	35.8	36.1	36.5	36.8	37.2	37.5	37.8	38.1	38.4
2017	37.9	37.6	37.2	37.2	37.3	37.4	37.6	37.8	38.0	38.2	38.5	38.6	38.9	38.7	37.6	37.5	37.8	38.2	38.6	39.0	39.3	39.7	40.0	40.3
2018	39.7	39.5	39.1	39.2	39.3	39.5	39.7	39.9	40.1	40.4	40.6	40.9	41.2	41.0	39.8	39.6	39.8	40.1	40.3	40.7	40.9	41.2	41.4	41.7
2019	41.6	41.4	41.1	41.2	41.3	41.4	41.5	41.7	41.9	42.1	42.3	42.5	42.7	42.4	41.2	41.0	41.3	41.6	42.0	42.4	42.7	43.0	43.4	43.7
2020	43.8	43.7	43.4	43.5	43.7	43.9	44.1	44.4	44.7	44.9	45.2	45.4	-	-	-	-	-	-	-	-	-	-	-	-
2021 ^P	-	-	-	-	-	-	-	-	-	-	-	-	-	-	-	-	-	-	-	-	-	-	-	-

5. 전체 출산휴가자 수

5-1. 전체 출산휴가자

단위(명)			
	계	부	모
2019	78,234	5,445	72,789
2020	89,374	19,684	69,690

5-2. 연령별 비중

단위(%)					
	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 2019 >					
계	100.0	19.0	49.4	27.7	3.9
부	100.0	9.5	38.8	39.8	11.9
모	100.0	19.7	50.2	26.8	3.3
< 2020 >					
계	100.0	16.9	47.7	29.7	5.7
부	100.0	10.0	38.5	39.3	12.2
모	100.0	18.9	50.3	27.0	3.9

5-3.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

단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 2019 >						
계	100.0	44.6	21.8	26.2	6.0	1.4
부	100.0	18.7	48.0	29.6	2.3	1.4
모	100.0	46.5	19.8	26.0	6.3	1.4
< 2020 >						
계	100.0	40.6	25.8	26.8	5.5	1.3
부	100.0	19.8	47.4	28.9	2.6	1.3
모	100.0	46.5	19.8	26.2	6.3	1.3

5-4. 종사 산업별 비중

단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 2019 >													
계	100.0	18.0	2.5	11.2	3.1	1.4	5.5	9.0	12.4	6.2	4.0	20.0	6.8
부	100.0	50.5	3.1	11.3	2.9	1.1	8.3	1.8	8.3	4.9	0.6	2.8	4.3
모	100.0	15.6	2.4	11.2	3.1	1.4	5.3	9.5	12.7	6.3	4.2	21.3	6.9
< 2020 >													
계	100.0	22.9	2.5	11.5	3.0	1.5	6.2	7.5	11.8	5.8	3.5	17.6	6.4
부	100.0	49.7	3.3	11.1	3.2	1.1	8.5	2.2	8.5	4.7	0.6	3.2	4.0
모	100.0	15.3	2.2	11.7	2.9	1.5	5.5	9.0	12.7	6.1	4.3	21.6	7.0

* 기타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 자기소비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및 산업분류 미상

부 록

1. 육아휴직통계 개요 56

2. 자주하는 질문 57

Q1.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 57

Q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활용도 59

Q3. 잠·확정 체계 공표 이유 60

Q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의 의미 61

Q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에서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 61

Q6. 육아휴직 실태 현실 반영도 61

Q7. 국외 사례 62

Q8. 관련 통계 63

3. 한국표준산업분류 64

□ 작성 목적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01092호)

□ 작성 연혁

- (2020.12.)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최초 공표
- (2021.12.) 2020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공표*

* ‘출생아 대상 휴직’에서 ‘출생아 부모의 휴직’ 개념으로 변경

□ 작성 주기 및 공표 시기

- 작성 주기: 연간
- 공표 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12월 잠정(익년 12월 확정)

□ 모집단 및 작성 대상

- 모집단: 기준시점 현재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부모
- 작성대상:
 - 법률상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및 공무원
 - 고용보험 자료의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

□ 활용 행정자료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 인구동향 출생·사망 자료, 기업통계등록부 등 11종

1.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제도 >

(2021년 기준)

	근로자*	공무원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대상	-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 공무원
자격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 -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자녀 1명당 3년 이내
분할사용	- ('08. 6월 이후) 1회 분할 가능 - ('20. 12월 이후) 2회 분할 가능	- 제한 없음

* 근로자의 세부 육아휴직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근로기준법)

-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이 되는 자녀 연령 및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화해 왔음

< 민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녀연령		근로기간	
'88. 4월	· 생후 1년 미만(母만 가능)	'01. 11월	· 재직기간 1년 이상
'95. 8월	· 생후 1년 미만(父도 가능)	'18. 5월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06. 3월	· 생후 3년 미만		
'10. 2월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4. 1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

자녀연령		근로기간
'95. 1월	· 생후 1년 미만(부모 모두 가능)	· 관련 제한규정 없음
'02. 1월	· 생후 3년 미만 · 임신 또는 출산시 가능(母)	
'07. 3월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11. 5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관련 급여 및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화하여 왔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민간		공무원	
'01. 11월	· 육아휴직급여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월	· 육아휴직수당 근거규정 신설(월 20만원)
'02. 12월	· 월 30만원	'03. 1월	· 월 30만원
'04. 2월	· 월 40만원	'04. 4월	· 월 40만원
'07. 4월	· 월 50만원	'07. 1월	· 월 50만원
'11. 1월	· 통상임금의 40%(50~100만원)	'11. 1월	· 월봉급액의 40%(50~100만원)
'14. 10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5. 1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상향 (월봉급 100%, 상한 150만원)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16.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17. 1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7월	· 둘째 자녀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 200만원
'17. 9월	· 첫 3개월 통상임금 80%(70~150만원)	'17. 9월	· 첫 3개월 월봉급 80%(70~15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8. 7월	· 위 자녀 구분 규정 삭제 (모든 두 번째 휴직 상한 20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70~120만원)	'19. 1월	· 두 번째 육아휴직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4개월 이후 월봉급 50%(70~120만원)
'20. 2월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20. 3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0. 8월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첫 3개월 상한 250만원

2. 육아휴직통계에서 공표하는 지표의 종류와 그 활용도는 무엇인가요?

지표 산식 및 활용도

1. 전체 육아휴직자 수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규모 가늠

2-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규모 가늠

2-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t\text{년도 출생아수}} \times 100$$

☞ 출생아 대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실질 대상자의 규모 가늠

2-3.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frac{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 t\text{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t\text{년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 \times 100$$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출생아 부모 중 t년도에 실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비중 파악

3. 전 기간(t~t+9년) 육아휴직 행태(1자녀 부모*)

* t~t+9년까지 t년 출생아만 있는 부모 중 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부모

☞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행태 및 분할사용 행태 분석

4. 출산 전·후 母의 취업비중

연도별 출산 母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년 기간 중 30일 간격 각 기준일에 행정자료 상 취업(상용/임시/사업소득) 기록이 있는 경우를 집계

☞ 출산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비중 변화 파악

5. 전체 출산휴가자 수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일 기준 부와 모의 출산휴가자 규모 파악

☞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육아휴직통계를 잠·확정 체계로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통계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자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자 자료로 육아휴직자를 파악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시점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점 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시점과의 시차, 관련 행정자료 입수시기*, 통계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잠·확정 체계(1년 시차)로 공표하고 있음

* 고용보험자료는 2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건강보험자료는 9개월 내외의 시차로 입수

< 잠정·확정 공표 체계 >

	2021년 육아휴직자 자료	
	잠정치	확정치
공표시점	2022년 12월	2023년 12월
활용 행정자료	(고용보험) '22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21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1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21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고용보험) '23년 8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21년 중에 발생한 사람 (건강보험) '22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유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람 중 실제 육아휴직시작일이 '21년도 중에 발생한 사람
한계	고용보험 자료 중 '22.9월~22.12월에 신고한 '21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자료 중 '22. 1월 이후 신고한 '21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고용보험 자료 중 '23.9월~23.12월에 신고한 '21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건강보험 자료 중 '23. 1월 이후 신고한 '21년도 육아휴직자 미포함

4. '전체 육아휴직자 수' 지표에서 시작일 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를 뜻함

(예시)

유형	육아휴직 사용 기간	'21년 육아휴직자 포함 여부
A	'20년 12월 ~ '21년 11월	포함 ×
B	'21년 1월 ~ '21년 3월, '21년 9월 ~ '22년 1월	1회 포함
C	'20년 12월 ~ '21년 3월, '21년 9월 ~ '22년 1월	1회 포함

- 당해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통계로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자료 상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이 잦고 적기에 수정이 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임

5.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대상)자 수' 지표와 같이 육아휴직자 수나 대상자 수를 출생아 대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출산이 심해지면 육아휴직 제도 활용 정도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6. 육아휴직통계가 육아휴직 실태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나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과의 시차로 인하여 잠정치와 확정치 모두 육아휴직 실태보다 과소하게 집계될 수밖에 없음
- 또한, 군인 등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실보다 과소하게 집계됨

7. 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통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OECD에서 각 국가의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이나, 대상 자녀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남·여 각각)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
- 국가별 세부 기준(대상 자녀 나이, 분할사용 여부, 포괄범위, 유급·무급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수집한 자료로 국가 간 비교 시 유의 필요

< OECD 육아휴직 통계 (2016년 기준) >

(단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

국가	남	여	국가	남	여
노르웨이	96.1	149.1	오스트리아	6.1	140.6
뉴질랜드	0.5	59.6	이탈리아	11.1	54.1
덴마크	49.3	134.4	체코	4.6	238.8
독일	35.0	93.7	캐나다	9.0	57.3
룩셈부르크	19.1	58.3	포르투갈	87.4	107.8
리투아니아	29.3	106.2	폴란드	1.1	102.4
스웨덴	314.1	380.0	프랑스	2.4	53.3
아이슬란드	131.0	158.9	핀란드	50.9	145.8
에스토니아	18.6	204.3	호주	0.2	55.1

8. 육아휴직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자 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명	육아휴직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통계종류	가공	조사(표본)	보고
작성년도*	2010년 이후	2017년 이후	2012년 이후
작성주기	1년	1년	월
활용자료/ 표본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11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5,000개 사업체 표본조사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고용보험
포괄범위	민간 및 공공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군인 제외)	민간 (산업분류 A.농림어업 및 O.공공행정 제외)	민간 (고용보험 가입자)
집계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기준

* 작성년도: 육아휴직자 수 관련 통계 작성 기준

부록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정식명칭	약칭
A. 농업, 임업 및 어업	A.농림어업
B. 광업	B.광업
C. 제조업	C.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전기·가스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E.수도·하수·폐기물
F. 건설업	F.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G.도소매
H. 운수 및 창고업	H.운수·창고
I. 숙박 및 음식점업	I.숙박·음식
J. 정보통신업	J.정보통신
K. 금융 및 보험업	K.금융업
L. 부동산업	L.부동산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전문·과학·기술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N.사업시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업	P.교육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Q.보건·사회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R.예술·스포츠·여가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S.협회·수리·개인
T.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T.가구내 고용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U.국제·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